

한-페루 FTA 이행과 그 활용 가능성 주요 수출입품목을 중심으로

임병호 주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01

한-페루 FTA 개관

2011년 8월에 발효되어 이행 4년차에 접어든 한-페루 FTA. 최근 페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한 방송사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페루 마추픽추를 여행하는 모습이 방영된 이후 페루를 여행하려고 하는 국내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있다. 한-콜롬비아 FTA 역시 국내에서 먼저 국회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어 상대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 되면 발효되는 상황이며, 멕시코와 MERCOS와는 협상재개 또는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남미 FTA의 교두보 격인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수출입 품목의 FTA활용 계획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페루 FTA 주요내용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발효한 두 번째 FTA로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장한 상징적인 FTA 협정이다. 한-페루 FTA를 통하여 우리 경쟁상대인 일본과 페루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페루는 중남미의 자원 부국으로서 은 매장량 세계1위, 아연 매장량 세계 3위, 주석 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페루 FT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페루는 FTA 협정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품목 수 기준으로도 우리는 97.4%, 페루는 98.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입은 90%이상이 아연광, 동광, 철광, 등 광물성 제품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개방 부담이 크지 않으며, 또한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에 대하여도 예외적 취급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페루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양허		양허유형	페루양허	
주요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금, 은,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벨트(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사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승용차, TV,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 부품, 카스테레오,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배, 사과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연과, 스웨터,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승용차,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아연과, 일부 연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 고등어, 닭고기, 오리고기, 체다치즈, 무당연유, 녹두, 팔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연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연축전지,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보리, 사과, 배, 분류, 치즈, 인삼류, 대두, 밤, 대추, 민어, 명태, 오렌지주스	91	현행관세 유지	-	-

자료 :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페루 FTA 활용상의 특징

원산지증명 방식(협정 제4.1조)

한-페루 FTA에서는 협정 발효 후 5년 간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증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자율증명을 할 수 있는 자는 인증수출자와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수출자로서,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운영된다. 협정 발효 5년 이후 (201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자율증명제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한-미, 한-EU,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 방식 비교

구 분	한-미	한-EU	한-페루
제 도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 · 자율 → 자율
발급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인증수출자

자료 :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검증 방식(협정 제4.8조)

한-페루 FTA에서는 원산지검증시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며, 간접검증이란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출자를 조사하고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 한-미, 한-EU, 한-페루 FTA 원산지검증 방식 비교

한-미	한-EU	한-페루
직접검증 (섬유상품 간접검증 가능)	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 참관가능)	직접 · 간접검증 (선택)

자료 :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운송원칙 (제3.14조)

한-페루 FTA에서는 한-미 및 한-칠레 FTA와 달리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양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제3국의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고, 선적 하역 재포장 외의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02

한-페루 FTA 산업동향

이하에서는 한-페루 FTA 발효 전후의 산업별 수출입동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산업의 분류 기준은 MTI 1단위로 하였으며 산업별 수출동향 및 산업별 FTA 수출활용률로 구분하였다. 발효전 후 1년, 2년, 3년의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상기간
발효전 3년	2008.7~2009.6
발효전 2년	2009.7~2010.6
발효전 1년	2010.7~2011.6
발효후 1년	2011.7~2012.6
발효후 2년	2012.7~2013.6
발효후 3년	2013.7~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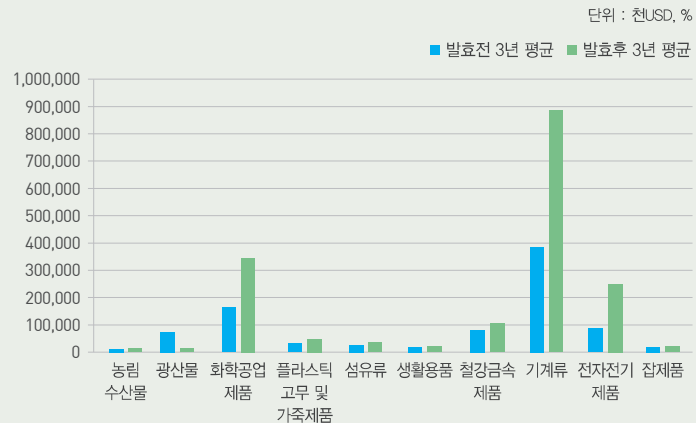
산업별 수출동향

가. 對페루 산업별 수출 동향 (MTI 1기준)

다음은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 동향을 산업별 (MTI 1기준)로 나타낸 것이다. MTI 1단위 기준으로,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 그리고 전자전기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기계류의 경우 발효전 3년 평균이 3억8천3백만 달러에 머무르던 수출금액이 발효후 3년간 평균 8억8천3백만 달러로 약 130%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화학공업제품이 122.5%, 전자전기제품이 174.7% 증가하는 등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1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출동향



■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출동향

단위 : 천USD, %

MTI 1	발효전 3년 평균	발효후 3년 평균	증감률
농림수산물	459	867	89.0
광산물	71,374	1,842	- 97.4
화학공업제품	158,352	352,336	122.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8,557	54,662	91.4
섬유류	26,845	30,814	14.8
생활용품	2,925	7,178	145.4
철강금속제품	85,814	106,405	24.0
기계류	383,825	883,381	130.2
전자전기제품	87,284	239,799	174.7
잡제품	2,034	6,308	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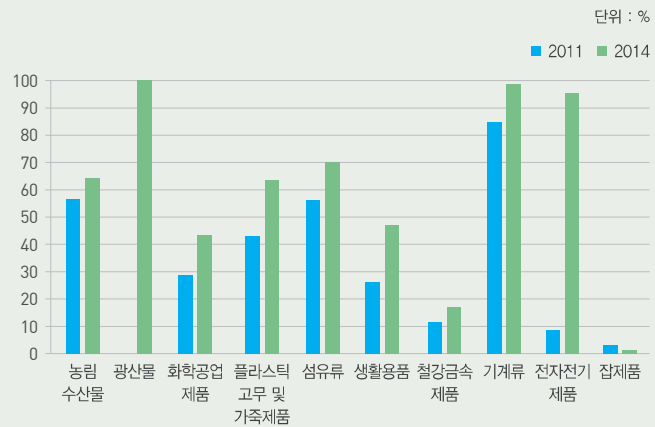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나. 對페루 산업별 수출 FTA활용률

다음은 한-페루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의 산업별 FTA 활용률을 MTI 1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한-페루 FTA 수출활용률은 60.7%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91.8%의 수출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산업별로 살펴볼 경우,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군에서 FTA 활용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산물 산업의 경우 2011년 발효 시점에서 FTA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수출되는 광산물 모든 물품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출 FTA 활용률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섬유류가 2011년 55.6%에서 2014년 70.3%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전기 제품의 경우 8.2%에서 93.2%로 FTA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TA발효 후 3년간 누적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FTA를 활용한 산업은 광산물 (99.5%), 기계류(96.6%)로서 90% 이상의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며, 섬유류(59.7%), 철강금속제품(58.8%), 전자전기제품(52.0%)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3년간 33.9%의 FTA활용률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였으며, 잡제품의 경우 2.9%의 활용률로서 대부분의 수출이 FTA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對페루 산업별(MTI 1 기준) 수출 FTA활용률

단위 : %

MTI 1	2011	2012	2013	2014	평균
농림수산물	56.5	30.8	22.5	63.4	33.9
광산물	0.0	0.0	100	100	99.5
화학공업제품	29.6	54.9	42.1	42.5	45.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1.5	39.2	54.0	61.9	48.4
섬유류	55.6	56.6	59.7	70.3	59.7
생활용품	25.8	35.1	57.6	47.5	43.9
철강금속제품	11.5	77.0	47.3	17.5	58.8
기계류	85.9	97.3	98.1	99.1	96.6
전자전기제품	8.2	28.6	97.1	93.2	52.0
잡제품	2.3	20.8	3.4	0.9	2.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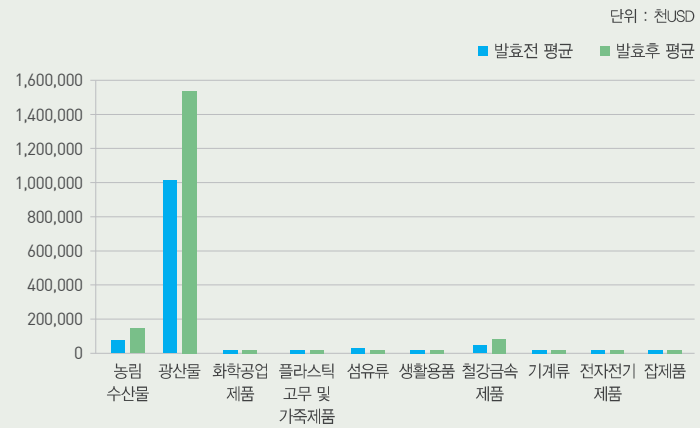
산업별 수입동향

가. 對페루 산업별 수입 동향 (MTI 1기준)

다음은 우리나라의 對페루수입 동향을 산업별 (MTI 1기준)로 나타낸 것이다. MTI 1단위 기준으로 수입을 보면, 우리나라의 페루 수입은 대부분 광산물 관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산물 산업의 경우 FTA 발효시기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수입금액을 보였으며, 발효 전후 증가율도 49.5%로 높은 편이다.

기타 산업의 경우 농림수산물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의 산업이 발효 전후 평균 1천만 달러 이상 수입된 산업군들인데, 농림수산물이 79.1%, 철강금속제품이 242.5%로 높은 수입증가를 나타낸 반면, 섬유류의 경우 -5.6%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입동향



자료 : 무역협회

■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입동향

단위 : 천USD, %

MTI 1	발효전 3년 평균	발효후 3년 평균	증가율
농림수산물	79,089	141,651	79.1
광산물	1,016,522	1,519,766	49.5
화학공업제품	2,690	2,365	-12.1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22	271	121.5
섬유류	12,536	11,837	-5.6
생활용품	165	320	94.1
철강금속제품	17,653	60,469	242.5
기계류	328	272	-17.1
전자전기제품	435	765	75.8
잡제품	4	9	1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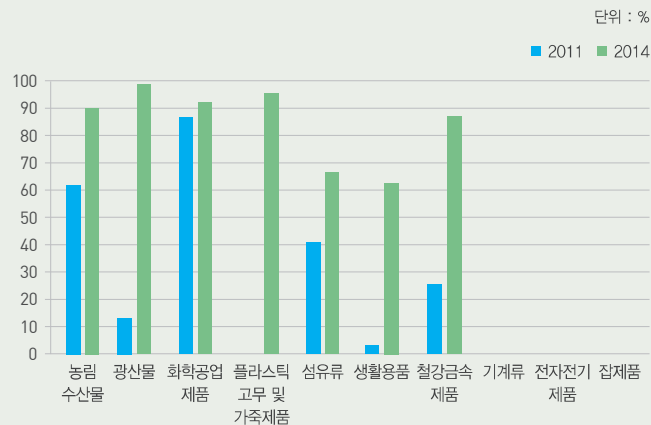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나. 對페루 산업별 수입 FTA활용률

다음은 한-페루 FTA 발효 후, 우리나라對 페루수입의 산업별 FTA 활용률을 MTI 1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한-페루 FTA 수입활용률은 54.0%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수입활용률이 92.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88.1%의 수입활용률을 나타냈다.

수입활용률의 경우 2011년부터 모든 산업에서 활용률이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물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경우 2014년도에는 90%를 상회하는 FTA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철강금속제품과 섬유류,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6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 잡제품의 경우에는 FTA 활용률이 0%로 FTA 수입으로 인한 실적은 없으며, 모두 일반수입으로 나타났다.

그림 4 對페루 산업별(MTI1 기준) 수입 FTA 활용률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수입의 경우 발효 초기인 2011년도에는 30% 이하의 낮은 FTA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나 점차 증가한 산업군이며, 농림수산물과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발효 초기부터 60%를 상회하는 높은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 對페루 산업별(MTI 1 기준) 수입 FTA 활용률

단위 : %

MTI 1	2011	2012	2013	2014	평 균
농림수산물	61.4	94.8	94.5	90.4	92.8
광산물	12.9	22.6	100.0	99.2	99.9
화학공업제품	87.4	91.9	88.5	93.0	90.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0.0	0.4	98.6	95.1	96.6
섬유류	41.0	46.9	56.0	65.7	52.5
생활용품	3.3	77.8	78.3	62.5	72.7
철강금속제품	25.8	96.3	96.5	86.7	93.7
기계류	0.0	0.0	0.0	0.0	0.0
전자전기제품	0.0	0.0	0.0	0.0	0.0
잡제품	0.0	0.0	0.0	0.0	0.0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03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수출동향(HS 4단위 기준)

가. 對페루 주요 수출품목(상위 30대)

다음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품목 중, HS 4단위 기준으로 수출금액기준 상위 30개 주요 수출품목을 나타낸 표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출한 품목은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로서 2013년 기준 총 5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어서 제8528호의 모니터와 TV가 9천4백만 달러,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가 7천6백만 달러, 제3902호의 프로필렌 중합체가 7천5백만 달러, 제8702호의 수송용 자동차가 4천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對페루 일반수출 상위30대 품목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 USD, %

순위	HS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FTA 활용률
1	8703	승용자동차	354,838	511,730	503,929	253,042	1,623,539	96.9
2	8528	모니터, 텔레비전 수신기기	110,299	139,160	94,561	26,215	370,235	46.0
3	8704	화물자동차	62,133	62,758	76,818	24,759	226,468	-

순위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FTA 활용률
4	3902	프로필렌 중합체	54,451	49,868	75,394	37,118	216,831	-
5	8702	수송용 자동차	81,798	52,852	40,166	13,703	188,519	-
6	3901	에틸렌 중합체	39,504	28,555	52,692	29,926	150,677	-
7	8429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등	32,290	53,238	29,626	10,948	126,102	-
8	7210	철,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33,081	30,564	30,354	11,691	105,690	-
9	8708	자동차 부분품	26,344	29,582	32,668	14,219	102,813	-
10	2523	포틀랜드 시멘트	12,632	25,999	50,267	13,065	101,963	-
11	3907	폴리에스테르	18,972	36,820	38,599	5,114	99,505	-
12	7216	철, 비합금강의 형강	12,961	31,680	23,727	10,521	78,889	-
13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유도체	20,786	24,144	25,857	7,838	78,625	97.4
14	4011	고무 타이어 (신품)	19,253	22,624	22,129	8,628	72,634	-
15	2837	시안화물	18,292	23,834	22,170	6,928	71,224	-
16	8517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20,272	16,477	18,654	14,705	70,108	-
17	8450	세탁기	12,889	22,826	22,153	11,518	69,386	100.0
18	3817	혼합알킬벤젠	11,445	7,877	13,940	5,490	38,752	-
19	4810	도포한 종지와 판지	12,147	13,836	5,782	5,243	37,008	48.0
20	8504	변압기	4,796	20,207	9,131	1,548	35,682	-
21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14,733	10,245	3,356	6,345	34,679	-
22	3903	스티렌의 중합체	7,766	11,948	8,327	5,035	33,076	-
23	7208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8,605	8,294	2,672	1,678	31,249	-
24	3002	치료용 피, 백신	3,513	5,054	11,145	10,583	30,295	13.4
25	8418	냉장고	5,317	8,619	10,146	3,363	27,445	94.2
26	5603	부직포	9,769	6,058	7,380	4,215	27,422	98.9
27	8431	기계의 부분품	6,218	8,696	8,662	3,596	27,172	-
28	4002	합성고무, 팩티스	8,572	9,835	5,503	2,209	26,119	-
29	3204	합성유기착색제	5,249	8,081	7,697	4,514	25,541	-
30	9018	내과, 외과, 치과용 기기	4,976	4,967	7,951	3,217	21,111	9.0

자료 : 관세청,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은 2011~2014(6월) 평균

※ FTA 활용률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FTA 수출되지 않은 품목

나. FTA 활용 수출품목

상위 30대 품목 중, FTA활용률이 90% 이상인 물품은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96.9%), 제2917호의 폴리카르복시산과 유도체(97.4%), 세탁기(100%), 냉장고(94.2%), 부직포(98.9%)이다. 이하에서는 승용자동차와 냉장고, 부직포의 수출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승용자동차 (제8703호)

• 산업동향 : 일본산 자동차와의 경쟁 치열

첫 번째 주요 수출품목은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이다. 승용자동차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한 물품 중 가장 높은 수출금액을 나타내는 품목이다. 페루는 일본, 한국, 미국, 유럽과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본산 자동차가 9개 상위 브랜드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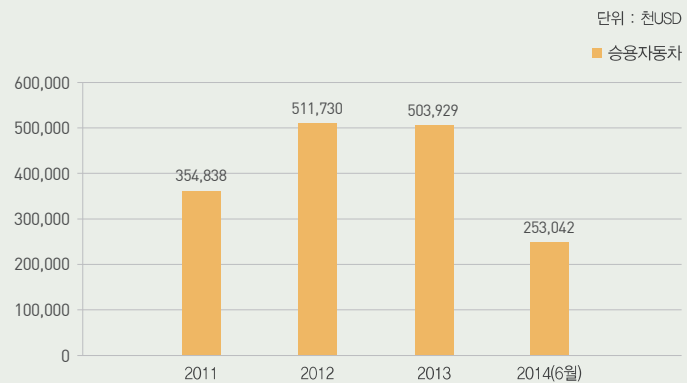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8703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8703	승용자동차	354,838	511,730	503,929	253,042	1,623,539	19.2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5 우리나라 對페루 제8703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차량으로서 화물이 아닌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주요 용도인 차량이다. HSK에서는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를

실린더의 용량에 따라 구분하고, 다시 신차 및 중고차로 구분한다.

• **FTA 활용금액 : 실린더 용량 1,500~3,000시시의 승용자동차 최대수출품목**

제8703호의 세부품목 중에서 가장 FTA 수출이 높은 물품은 제8703.23호의 승용자동차로서 실린더 용량이 1,500~3,000시시의 것이다. 이러한 물품은 국내 배기량 기준 중형차량 및 중형차량 이상의 차량으로서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모델차량이다. 또한 제8703.22호의 실린더 용량 1,000~1,500시시의 자동차가 두 번째로 FTA 활용금액이 큰 물품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703호 FTA수출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8703,10	설상주행, 골프용 등	-	-	-	-	-
8703,21	1,000 이하 불꽃점화식	2,607	34,563	39,013	16,464	92,647
8703,22	1,000~1,500 불꽃점화식	32,322	102,122	116,626	79,744	330,815
8703,23	1,500~3,000 불꽃점화식	102,413	356,593	332,109	149,453	940,568
8703,24	3,000초과 불꽃점화식	1,727	3,849	2,998	2,302	10,876
8703,31	1,500이하 압축점화식	-	-	-	-	-
8703,32	1,500~2,500 압축점화식	34	1,060	2,478	1,895	5,466
8703,33	2,500초과	487	1,625	2,100	1,313	5,524
8703,90	기타	-	-	-	-	-
총합계		139,590	499,812	495,323	251,171	1,385,896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대부분의 승용자동차 사실상 FTA 활용

2013년도 기준 제8703호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FTA 활용률 90%를 상회한다. 제8703호의 물품을 6단위 물품별로 구분하는 경우, 실린더 용량별로 6단위 품목번호가 구분된다. FTA 수출금액상 가장 높은 금액을 수출한 제8703.23호의 경우 97.8%의 활용률을 나타냈으며, 제8703.22호는 96.1%의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제8703.24호(실린더 용량 3,000cc 초과)는 99.8%의 활용률을 나타내어 사실상 대부분의 물품이 FTA를 활용한 수출임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703호 FTA수출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8703,10	설상주행,골프용등	-	-	0	-	0
8703,21	1,000이하불꽃점화식	36.0	91.5	99.4	93.8	91.0
8703,22	1,000~1,500불꽃점화식	80.1	96.9	98.8	99.3	96.1
8703,23	1,500~3,000불꽃점화식	91.8	98.7	98.0	99.9	97.8
8703,24	3,000초과불꽃점화식	100.0	99.4	100.0	100.0	99.8
8703,31	1,500이하압축점화식	-	-	-	-	-
8703,32	1,500~2,500압축점화식	49.6	70.5	96.8	98.3	90.2
8703,33	2,500초과	97.5	94.7	99.2	100.0	97.8
8703,90	기타	-	-	-	-	-
평균		86.5	97.7	98.3	99.3	96.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FTA 활용수출 가속화 전망

페루의 자동차 시장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페루 자동차협회(ARAPER)에 따르면 2012년 페루의 자동차 판매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9.9%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페루의 자동차 판매 증가는 한-페루 FTA효과에 앞서, 페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구매력의 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페인계 은행인 BBVA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국민들이 자가용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페루 FTA로 인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상승도 수출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FTA발효 이후인 2012년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32%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발효 전까지 1위였던 일본은 28%로 2위로 하락하였다.

■ 국가별 페루 자동차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	독일	인도	기타
2010년	25	43	4	6	5	5	0	12
2012년	32	28	9	7	7	5	3	9

자료 : 페루중앙은행과 BBVA의 조사 보고서

다만, 페루는 대형차보다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역시 3,000cc이하 차량의 비중이 전체의 91%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도 3,000cc이하의 수출차종을 다양화 시키고,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도 이들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을 도모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페루 FTA로 기준세율 9%의 한국산 중대형 자동차는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되며 기준세율 9%의 중소형 자동차는 10년 내 철폐 예정됨에 따라 향후 페루시장의 한국산 자동차 진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냉장고 (제8418호)

• 산업동향 : 연평균 수출 38.1%의 높은 수출증가

제8418호의 냉장고 및 냉동기기는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품목 중 상위 30대 품목에서 25번째 물품이다. 2011년 약5백3십만 달러를 수출한 후 지속적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2011년의 약 두 배 수준인 1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2014년 상반기까지의 누계는 2천7백만 달러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8.1%이다.

제8418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나 휘발성 물체 또는 물을 기화시켜 연속적으로 저온을 발생시키는 기계이다. 냉장고는 압축기와 응축기, 증발기로 구성되어 있는 압축형 냉장고와 압축기 대신 가스발생기가 사용되는 흡수형 냉장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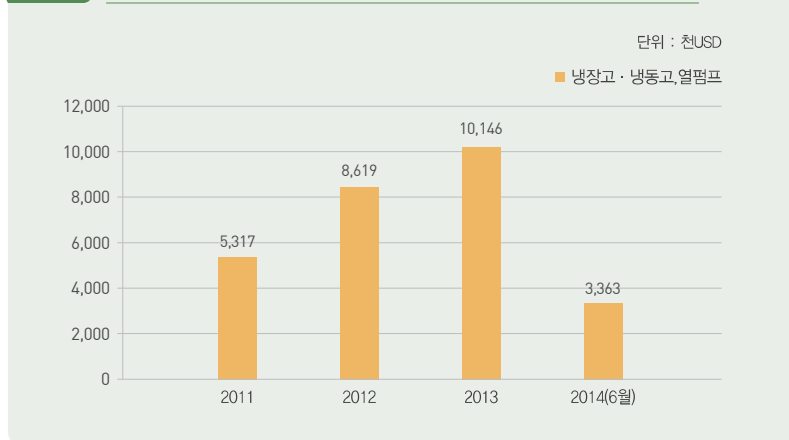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8418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연평균 증가율
8418	냉장고 · 냉동고, 열펌프	5,317	8,619	10,146	3,363	27,445	38.1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6 우리나라 對페루 제8418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FTA 활용금액 : 대부분 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냉장고의 수출

제8418호에는 외부 문의 형태나 그 구동방식(압축식 또는 흡수식), 냉장고의 형태(체스트형, 직립형, 가구형, 쇼케이스형, 냉장기구)에 따라서 HS6단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냉장고는 제8418.10호의 냉장고 (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에 냉장고의 부분품을 수출한 것을 제외하면 對페루 수출용 냉장고는 사실상 제8418.10호의 물품이 대부분이다.

냉장고는 대표적인 가전기기로서 제품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페루 내 한국의 인지도는 매우 높으며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호감을 보인다. 페루에서는

현재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이며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국산 가전제품은 가격은 높으나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현지시장 진출이 용이한 편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418호 FTA수출동향(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8418.10	냉장고, 냉동고 (분리된 외부문)	1,740	7,667	8,645	2,953	21,006
8418.21	압축식 가정형	-	-	-	-	-
8418.29	기타 가정형	-	-	-	-	-
8418.30	체스트형	-	-	-	-	-
8418.40	직립형	-	-	-	-	-
8418.50	가구형	-	-	-	-	-
8418.61	열펌프	-	-	-	-	-
8418.69	기타	-	-	-	-	-
8418.91	부분품 (가구형)	-	-	-	-	-
8418.99	부분품 (기타)	-	84	100	0	184
총합계		1,740	7,751	8,745	2,954	21,18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완제품은 높은 활용률, 부분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

냉장고의 HS 6단위별 활용률의 경우, 제8418.10호(분리된 외부문을 갖춘 냉장고, 냉동고)물품의 FTA활용률이 90%를 상회한다. 최근 3년간 냉장고의 FTA활용률은 94.6%이므로 대부분의 수출은 FTA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냉장고 부분품의 수출은 냉장고 FTA 수출에 미치지 못하는 77.4%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상반기의 경우 1%에 미치지 못하는 활용률로 부분품 수출은 거의 FTA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축식 냉장고(제8418.21호), 체스트형 냉장고(제8418.30호), 직립형 냉장고(제8418.40호) 역시 FTA 대상 수출금액이 4만 달러 존재하였으나 특혜 적용을 전혀 하지 않아 활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418호 FTA수출활용률(HS 6단위 기준)

단위: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8418,10	냉장고, 냉동고 (분리된 외부문)	98.4	95.9	93.5	92.4	94.6
8418,21	압축식 가정형	-	0	-	-	0
8418,29	기타 가정형	-	-	0	-	0
8418,30	체스트형	-	0	-	-	0
8418,40	직립형	0	0	0	0	0
8418,50	가구형	-	-	-	-	-
8418,61	얼퍼프	-	-	-	-	-
8418,69	기타	-	-	-	-	-
8418,91	부분품 (가구형)	-	-	-	-	-
8418,99	부분품 (기타)	-	79.9	85.3	0.8	77.4
평균		97.4	95.5	93.2	92.1	94.2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Made in Korea' 효과로 수출 상승

우리나라 업체들은 페루내 가전시장 선점을 위한 다각적인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 한 업체는 수질이 나쁜 페루시장을 겨냥하여 워터펌프를 내장한 디스펜서 양문형 냉장고 '망꼬라(MANCORA)'를 출시하였다. 기존 디스펜서 냉장고 제품과 달리 정수된 물을 공급받기 위해 별도의 외부 호스를 연결할 필요 없이 냉장실 내부에 생수 저장케이스를 두고 워터펌프를 활용하여 냉동실 쪽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 시원한 물과 얼음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망꼬라는 페루 북쪽 가장 깨끗한 바다를 뜻한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콘셉트로 매장 디스플레이 디자인, POP 등을 선보일 정도로 '한류'의 효과가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냉장고 완제품과는 달리, 냉장고 부분품(8418.99호)의 FTA활용률은 아직 완제품의 FTA활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냉장고 완제품의 페루시장 진출이 초반인 만큼, A/S에 사용되는 부분품보다는

완제품의 수출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냉장고(제8418.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반면, 부분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보다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낮은 FTA활용률의 일부 원인으로 판단된다.

3 부직포(제5603호)

■ 산업동향 : 높은 수출금액이지만 점차 하락 추세

제5603호에 속하는 부직포는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물품 중 수출금액기준 26번째 품목이다. 2011년도에는 총 9백7십만 달러를 수출하여 최근 3년간 연간 최대수출금액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수출이 감소하여 6백만 달러를 나타내었으며 2013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 3년간 총 수출금액은 2천7백만 달러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3%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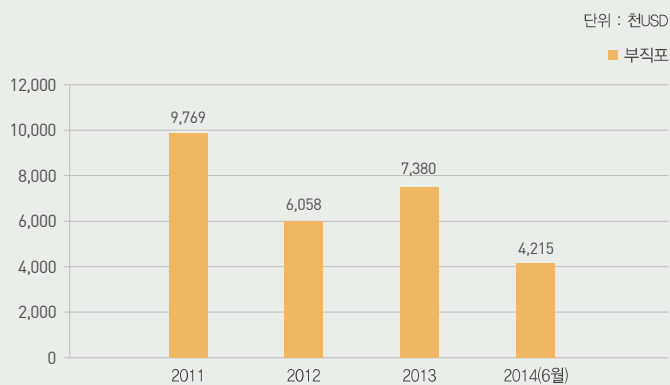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5603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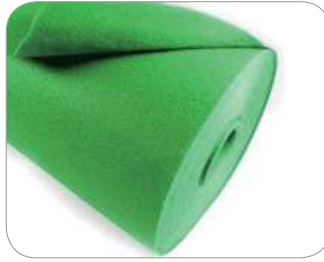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5603	부직포	9,769	6,058	7,380	4,215	27,422	-13.1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7 우리나라 對페루 제5603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부직포란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배열하고 접착제를 첨가하여 접착시킨 섬유상의 시트(sheet) 또는 웹(web)을 말한다. 부직포의 재료로 사용되는 섬유는 천연섬유나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상 또는 필라멘트상일 수도 있다.

• FTA 활용금액 :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의 수출

부직포는 HS 6단위에서 인조필라멘트의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다시 1제곱미터당 중량에 의하여 품목번호가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FTA 협정을 적용받아 수출하는 물품은 제5603.12호의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의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5그램 이하의 것이다. 부직포의 중량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중량 (1제곱미터당 그램)	주요 용도
농업용	30~80	못자리용, 고추건조용 등
가방용	40~100	판촉용 가방, 쇼핑백
포장용	60~100	옷커버, 선풍기커버 등
산업용	20~240	신발제조시 내장재 및 갑피
자동차용	20~100	자동차 내장재용

자료 : 한국부직포테크(주)

이러한 부직포의 FTA 활용 수출은 2011년 협정발효 직후 3백8십만 불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두 배인 7백3십만 불을 수출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만 4백만 불 이상 수출하였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5603호 FTA수출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 USD

HS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5603,11	인조필라멘트(25g/m ² 이하)의 것	-	-	-	-	-
5603,12	인조필라멘트(25g/m ² ~70g/m ²)의 것	3,892	5,984	7,313	4,143	21,331
5603,13	인조필라멘트(70g/m ² ~150g/m ²)의 것	-	-	-	-	-

HS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5603,14	인조필라멘트(150g/㎡ 초과)의 것	-	-	-	-	-
5603,91	기타(25g/㎡ 이하)의 것	-	-	-	-	-
5603,92	기타(25g/㎡~70g/㎡)의 것	-	-	16	-	16
5603,93	기타(70g/㎡~150g/㎡)의 것	-	-	-	-	-
5603,94	기타(150g/㎡ 초과)의 것	-	-	-	-	-
총합계		3,892	5,984	7,329	4,143	21,347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부직포 대부분 FTA 적용 수출

부직포의 수출활용률은 사실상 모든 수출물품이 FTA 적용받아 수출하고 있어, 100% 활용에 가깝다. 제5603,12호의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는 2011년 협정발효 직후부터 대부분의 수출물품이 FTA 협정을 적용받아왔다.

다만, 제5603,92호의 기타 부직포의 경우 수출대상금액은 17만 달러이나 실제 FTA 적용금액은 1만6천 달러에 불과해 9.3%의 낮은 활용률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제5603,13호의 부직포와 제5603,14호의 부직포 역시 약1만 달러의 수출이 존재하였음에도 FTA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5603호 FTA수출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5603,11	인조필라멘트(25 g/㎡ 이하)의 것	-	-	-	-	-
5603,12	인조필라멘트(25 g/㎡~70 g/㎡)의 것	99.3	100.0	99.9	100.0	99.9
5603,13	인조필라멘트(70 g/㎡~150 g/㎡)의 것	-	-	0	-	0
5603,14	인조필라멘트(150 g/㎡ 초과)의 것	-	0	-	0	0
5603,91	기타(25 g/㎡ 이하)의 것	-	-	-	-	-
5603,92	기타(25 g/㎡~70 g/㎡)의 것	0	0	25.5	0	9.3
5603,93	기타(70 g/㎡~150 g/㎡)의 것	-	-	-	-	-
5603,94	기타(150 g/㎡ 초과)의 것	-	-	-	-	-
평 균		99.2	98.8	99.3	98.3	98.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한국산 부직포의 가격경쟁력 상승

그동안 페루의 부직포 수입은 고급제품은 미국산, 중급제품은 일본, 한국 제품이며, 중국산은 중하급 제품으로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으나, 최근 한-페루 FTA로 인해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산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었다.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부직포는 중량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의 것으로서 중량으로 보아 주요 용도는 산업이나 자동차용보다는 농업용에 가깝다. 이것은 페루의 주요 생산물품인 1차 농림수산물용이나 채광시 발생하는 먼지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직포의 이러한 용도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수요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페루의 부직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FTA 수출 기대품목 (상위 30대 품목 중)

다음은 수출상위 30대 물품 중, FTA 활용률이 30% 이하인 물품이다. 이러한 물품은 수출금액은 높고 동시에 FTA 협정대상물품이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또는 기타 특혜조건이 미비하여 FTA가 아닌 일반수출된 품목이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FTA활용을 위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높은 수출금액을 이용한 FTA 활용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상위 30대 품목 중 FTA 활용률이 30%이하인 물품은 제3002호의 치료용 피, 백신 (13.4%), 내과, 외과, 치과용 기기 (9.0%)가 있다.

1 치료용 백신 (제3002호)

• 산업동향 : 성장하는 페루 의료시장

페루는 그동안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병원 대신 약사들의 처방을 통해 치료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의료기기에 대한 지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항암제 에이즈 치료용 의약품 (제3004.20호)의 경우 연평균

86.9%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인위생용품(제3307.90호)의 경우에도 성장세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페루 30대 수출품목 중, 제3002호(치료용 피와 백신 등)는 수출액 기준 24번째 물품으로서 총 3년간 총 수출금액이 3천만 달러에 달하며, FTA 발효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8.1%에 달하는 물품이다. 그에 반하여 동 물품의 FTA 활용률은 30% 미만인 13.4%로서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에 속한다.

2011년도 수출액은 약 3백5십만 달러였으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천1백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는 1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이미 전년도 연간 수출금액과 비슷한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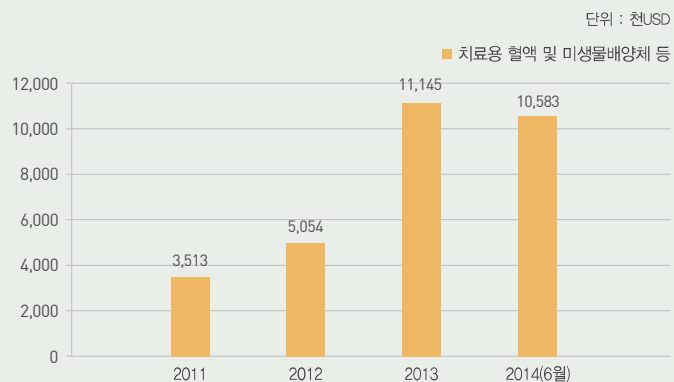
■ 우리나라 페루 제3002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 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3002	사람의 피, 치료용 동물의 피와 면역물품, 미생물 배양체 등	3,513	5,054	11,145	10,583	30,295	78.1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8 우리나라 페루 제3002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3002호의 물품에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사람과 동물의 피와 면역물품(백신), 미생물 배양체 등이 분류된다. 백신이란 미생물에서 유래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은 면역성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독성은 경감시키도록 처리된 물품이다.

• FTA 활용금액 : 인체 치료용 백신이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의 한-페루 FTA 수출품목인 제3002호 물품 중, 주요 수출물품은 제3002.20호의 인체용 백신이다. 제3002호 수출금액 360만 달러 중 340만 달러를 차지하여 제3002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3002.20호의 인체용 백신 수출금액은 2012년 2백 8십만 달러였으나 2013년과 2014년 상반기까지는 각각 17만 달러, 46만 달러로 2012년의 수출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외에 제3002.90호 (독소 등)의 기타 물품이 18만 달러 수출을 차지하고 있다. 제3002.90호의 수출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2만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3002호 FTA수출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 USD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3002.10	면역혈청	0	0	0	0	0
3002.20	백신(인체용)	0	2,849	177	460	3,487
3002.30	백신(동물용)	0	0	0	0	0
3002.90	기타	0	1	19	21	188
총합계		0	2,997	197	482	3,676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변동이 심한 백신의 FTA 활용률

제3002호 물품의 FTA활용률은 연도별 편차가 큰 편으로서 2011년에는 FTA 수출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59.3%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8%, 4.6%로 감소하였다. 특히, 제3002.20호의 인체용 백신은 2012년에는 65.3%의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나 2013년에는 1.7%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4년에는 FTA 수출대상금액 1천만 달러 중, 4.6%인 46만 달러만이 FTA 협정을 적용받아 수출되었다.

또한 제3002.10호의 면역혈청은 FTA 수출대상금액이 40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FTA협정적용을 전혀 하지 않아 0%의 수출활용률을 나타내었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3002호 FTA수출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3002,10	면역혈청	-	0	0	0	0
3002,20	백신(인체용)	0	65.3	1.7	4.6	13.7
3002,30	백신(동물용)	-	-	-	-	-
3002,90	기타	0	22.9	3.2	7.1	11.7
평균		0	59.3	1.8	4.6	13.4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국가 브랜드와 비례하는 백신 판매량

백신의 對페루 연도별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12년도 65.3%의 높은 활용률에 비하여 2013년 FTA적용 수출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백신구매에 있어서는 저렴한 가격보다 페루 정부에서 실시하는 기업들의 국제입찰 성공여부, 해당 년도의 유행병 또는 의사들의 국가 인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료용 백신은 특성상 최종구매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거의 없으므로 담당기관 또는 의사가 추천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페루의 사립병원 의사들은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브랜드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백신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제입찰의 경우 낙십자는 2014년 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의 2014년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2,300만 달러규모의 독감백신을 수주했다. 낙십자가 공급하는 백신은 콜롬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백신수출업체들은 FTA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향후 백신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사용바늘 (제9018호)

• 산업동향 : 주사용 바늘의 지속적인 수출증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30위를 차지하는 수출물품은 주사용바늘이다. 최근 3년간 총 수출금액은 2천1백만 달러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26.4%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약 5백만 불 수출하였으며 2013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약 8백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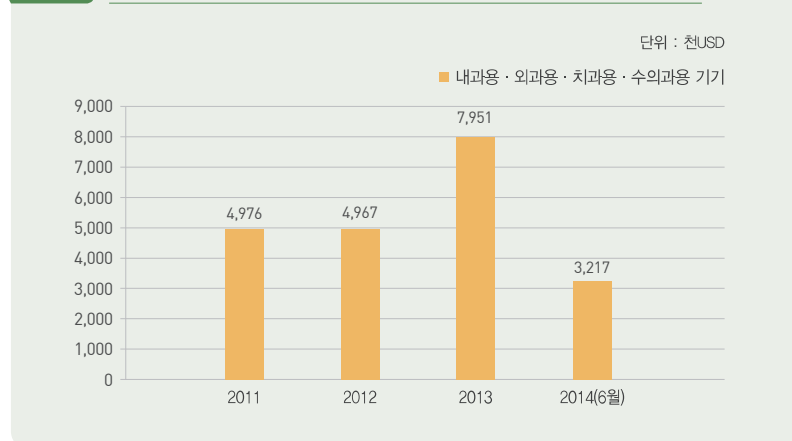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9018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과용 기기	4,976	4,967	7,951	3,217	21,111	26.4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9 우리나라 對페루 제9018호 일반수출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과용의 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내과 의사·외과 의사·치과 의사·수과 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

그러나 제9018호의 물품 중에서 FTA 수출물품은 제9018.32호의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제9018.32-1000호의 주사침 (Needles for injections)의 수출이다.

• FTA 활용금액

■ 우리나라 對페루 제9018호 FTA수출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USD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합 계
9018.11	심전계	-	-	-	-	-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	-	-	-	-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	-	-	-	-
9018.14	신티그래픽식	-	-	-	-	-
9018.19	기타	-	-	-	-	-
9018.20	자외선, 적외선 기기	-	-	-	-	-
9018.31	주사기	-	-	-	-	-
9018.32	바늘	-	14,410	-	25,200	39,610
9018.39	기타	-	-	-	-	-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	-	-	-	-	-
9018.49	기타	-	-	-	-	-
9018.50	안과용 기기	-	-	-	-	-
9018.90	기타	-	-	-	-	-
총 합계		-	14,410	-	25,200	39,610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9.5%에 머무르는 낮은 FTA 활용률

주요 수출물품인 주사침(제9018.32호)의 한-페루 FTA 활용률은 9.5%에 불과하다. 제9018호의 물품 중에서 FTA적용이 가능한 물품은 제9018.32-1000호의 주사침인데, 2014년의 경우 동 물품의 총 수출은 104,800달러 중에서 FTA 적용 금액은 25,200달러에 그쳐, FTA 활용률 24.0%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사기(제9018.31호)의 경우 2011년에 2만4천 달러의 수출금액이 존재하였으나 FTA 미적용으로 인하여 활용률이 0%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9018호 FTA수출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9018,11	심전계	-	-	-	-	-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	-	-	-	-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	-	-	-	-
9018,14	신틱그래픽식	-	-	-	-	-
9018,19	기타	-	-	-	-	-
9018,20	자외선, 적외선 기기	-	-	-	-	-
9018,31	주사기	0	-	-	-	0
9018,32	바늘	0	10.3	0	24.0	9.5
9018,39	기타	-	-	-	-	-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	-	-	-	-	-
9018,49	기타	-	-	-	-	-
9018,50	안과용 기기	-	-	-	-	-
9018,90	기타	-	-	-	-	-
평 균		-	10.3	-	24.0	9.5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주사침 및 기타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FTA 활용방법 모색 필요

페루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2년 약 2.8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5위이며 향후 2018년까지 11.7%씩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페루 의료시장의 성장은 페루 정부가 최근 국내 경제성장에 힘입어 의욕적으로 보건산업 성장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페루 정부는 2016년까지 공공의료 보편화를 위한 단계적 보건복지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9018호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는 우리나라 對페루 30대 수출물품이다. 그러나 한-페루 FTA활용도 측면에 있어서는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이 주사기와 주사침 정도이며, 기타 고부가가치 물품인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은 FTA 협정대상물품이 아니다.

다만, 공공의료의 확대에 따른 주사기 및 바늘과 같은 경우 페루에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FTA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현재 9.5%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사용바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된 철강을 원료로 하여 비늘을 만드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FTA 활용이 쉬운 편에 속한다.

또한 제9021호의 정형외과/보철기와 같은 환자보조기 시장의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동 분야의 시장진출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가. 對페루 주요 수입품목 (상위 30대)

다음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HS 4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한 주요 30대 품목을 나타낸 표이다. 수입금액기준 가장 높은 품목으로서 제26류의 구리와 납, 아연광, 귀금속광이 각각 1위부터 3위, 5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제2711호의 석유가스가 총 5억5천만 달러를 수입되었으며, 제1605호의 조제식료품은 1억6천만 달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對페루 일반수입 상위30대 품목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순위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FTA 활용률
1	2603	구리광과 그 정광	615,867	447,266	417,752	207,176	1,688,061	-
2	2607	납광과 그 정광	423,843	515,610	309,165	117,608	1,366,226	-
3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224,806	272,976	215,550	135,131	848,463	-
4	2711	석유가스와 가스상 탄화수소	-	-	498,442	56,665	555,107	100.0
5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	98,248	192,422	162,321	61,233	514,224	-
6	1605	조제 감각류, 연체동물 등	48,662	45,419	40,800	27,514	162,395	91.1
7	0901	커피, 커피각, 커피대용물	54,167	39,090	37,065	9,689	140,011	99.4
8	7403	정제한 구리, 구리합금	1,589	33,975	16,362	9,804	61,730	95.2
9	0307	연체동물	12,339	14,687	12,473	10,012	49,511	79.7

순위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FTA 활용률
10	7404	구리 웨이스트, 스크랩	7,689	6,941	9,897	4,972	29,499	-
11	0806	포도	734	5,084	12,396	10,132	28,346	100.0
12	7901	아연의 괴	-	-	14,977	13,073	28,050	100.0
13	7401	구리의 매트	1,237	3,753	10,583	12,471	28,044	-
14	0304	어류의 필레	6,052	4,911	8,244	2,430	21,637	100.0
15	2301	육, 어류의 비식용 가루	2,817	6,064	2,707	7,166	18,754	98.5
16	7801	납의 괴	-	-	9,519	1,443	10,962	99.1
17	1504	어류의 지방	576	1,795	4,365	3,122	9,858	90.8
18	6109	티셔츠, 싱글리트	3,621	1,686	2,597	1,604	9,508	29.2
19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2,388	1,633	2,206	2,692	8,919	90.2
20	0803	바나나	1,422	2,909	2,153	2,051	8,535	100.0
21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 스크랩	2,389	1,793	1,023	2,212	7,417	-
22	1604	조제 어류, 캐비아	677	4,765	1,015	84	6,541	74.4
23	1209	파종용 종자, 과실	528	1,335	2,517	1,795	6,175	-
24	3203	식물성, 동물성 착색제	3,221	1,388	832	654	6,095	94.7
25	5105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	2,014	1,152	1,242	1,166	5,574	-
26	0811	냉동과실, 냉동견과류	303	578	1,419	2,728	5,028	61.3
27	5112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 직물	1,946	1,590	619	46	4,201	93.2
28	6105	남성용 셔츠	942	848	1,499	647	3,936	49.1
29	0306	갑각류	-	109	1,613	1,918	3,640	97.0
30	6110	저지, 풀오버, 카디건	1,354	1,041	709	421	3,525	25.3
31	0709	그 밖의 채소	510	959	1,419	455	3,343	96.5
32	8112	베릴륨, 크로뮴, 게르마늄 등	-	-	1,465	1,741	3,206	22.3

자료 : 관세청,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은 2011~2014(6월) 평균

※ FTA 활용률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FTA 수입되지 않은 품목

나. FTA 활용 수입품목

30대 수입품목 FTA활용률이 90% 이상인 물품은 총 16개 물품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제2711호의 천연가스, 제0806호의 포도, 제7901호의 아연의 과,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가 FTA 활용률 10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1605호의 조제갑각류, 연체동물 등 (91.1%), 제0901호의 커피(91.1%), 제7403호의 정제한 구리, 구리합금 (95.2%), 제2301호의 육, 어류의 비식용 가루(98.5%) 등이 FTA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천연가스(제2711호)

• 산업동향 : 대표적인 FTA 활용수입품목, 천연가스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서 제2711호의 석유가스는 대표적인 FTA활용 수입품목이다. 수입액은 총 5억5천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중 3번째로 높은 수입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물품이다. 한-페루 FTA가 발효된 2011년과 그 다음해인 2012년에는 수입실적이 없었으나, 2013년부터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약 5천6백만 달러의 석유가스를 수입하였으나 동 금액은 FTA 활용금액이 아닌 일반수입금액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2711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2711	석유가스, 가스 상 탄화수소	-	-	498,442	56,665	555,107	-

자료 : 무역협회

제2711호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에서 얻어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가스형태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들 탄화수소는 15℃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 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상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

HS 6단위상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제2711.11호의 천연가스이다. 천연가스는 인공적인 과정을 거치는 석유 및 석유가스와는 달리 지하에 기체상태로 매장된 화석연료이다. 땅속에 퇴적한 유기물로부터 생성된 연료라는 점에서

석유와 같으나 천연가스는 직접 채취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에너지이다. 또한 액화과정에서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 연료이다.

• FTA 활용금액 : 2013년에 집중된 FTA 활용 수입

우리나라의 제2711.11호 액화천연가스의 FTA 활용수입은 2012년까지 없었으나 2013년에 4억4천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 수입 실적은 없다. 제2711.12호의 프로판과 제2711.13호의 부탄역시 페루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이는 FTA수입이 아니며, FTA 특혜대상품목도 아니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2711호 FTA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2711.11	천연가스(액화한 것)	0	0	446,078	0	446,078
2711.12	프로판(액화한 것)	0	0	0	0	0
2711.13	부탄(액화한 것)	0	0	0	0	0
2711.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액화한 것)	0	0	0	0	0
2711.19	기타(액화한 것)	0	0	0	0	0
2711.21	천연가스(가스상의 것)	0	0	0	0	0
2711.29	기타(가스상의 것)	0	0	0	0	0
총합계		0	0	446,078	0	446,078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발효 초 미활용, 발효 2년 후 100% 활용

제2711.11호의 천연가스의 FTA활용률은 100%로서 수입되는 모든 액화천연 가스는 FTA를 활용하여 특혜수입되고 있다. 기타 제2711호의 물품인 프로판, 부탄과 가스상의 천연가스 등은 수입되었으나 FTA 특혜대상이 아니므로 활용률 제고의 가능성은 낮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2711호 FTA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2711.11	천연가스(액화한 것)	-	-	100	-	100
2711.12	프로판(액화한 것)	-	-	-	-	-
2711.13	부탄(액화한 것)	-	-	-	-	-
2711.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부타디엔(액화한 것)	-	-	-	-	-
2711.19	기타(액화한 것)	-	-	-	-	-
2711.21	천연가스(가스상의 것)	-	-	-	-	-
2711.29	기타(가스상의 것)	-	-	-	-	-
평 균		-	-	100	-	100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페루 천연가스의 가격 경쟁력은 아직 부족

페루는 남미 3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서 국내소비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분기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페루 남부 가스파이프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3년 4억4천만 달러의 천연가스를 수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1년, 2012년, 2014년의 수입금액이 전무하다. 이것은 FTA를 활용한 페루산 천연가스의 톤당 금액이 0.87달러¹⁾로서 전체 수입 천연가스 평균인 0.77달러보다도 높고 특히 인도네시아(0.71달러), 말레이시아(0.68달러), 러시아(0.31달러)와 비교해서도 아직 가격이 높은 수준인 사실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산 천연가스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품목으로서 향후 FTA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하 요인은 없기 때문에, 향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조미오징어(제1605호)

• 산업동향 : 발효 초부터 완만한 감소세

제1605호의 조미오징어는 2011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입물품 중 6번째로 수입금액이 높은 물품이다. 2011년 수입금액은

1) 2013년 수입금액 /수입중량

4천8백만 달러이며 수입은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4천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3년간 총 수입금액은 1억6천2백만 달러이며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8.4%를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1605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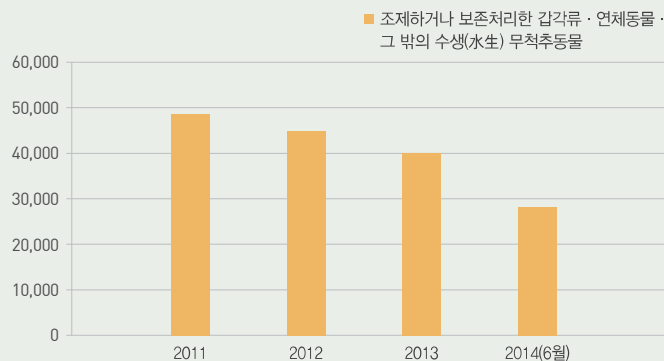
단위 : 천USD, %

HS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연평균 증가율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48,662	45,419	40,800	27,514	162,395	-8.4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10 우리나라 對페루 제1605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자료 : 무역협회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된다. 가장 흔한 물품으로는 게, 새우와 가재, 홍합, 문어, 오징어, 달팽이, 성게, 해삼, 해파리 등이 있다. 특히, 페루에서 수입되는 제1605호의 물품은 제1605.54호(오징어), 제1605.

59호(기타 연체동물) 등으로서 이러한 물품은 일정 수준의 가공을 거친 것(주로 진미채²⁾)이다.

• FTA 활용금액 : 주요 수입품목은 조미 오징어

제1605호의 세부품목상 우리나라의 對페루 FTA 활용 수입은 주로 갑오징어와 오징어, 기타 연체동물, 해삼 등이 있다. 갑오징어와 오징어의 특혜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 3년간 총 9천9백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수입금액은 2014년 상반기 2천만 달러 수준이다. 이외에도 기타 연체동물의 경우 총 5백만 달러 수입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 2백2십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해삼의 경우 2만3천 달러 특혜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1605호 FTA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1605,10	계	-	-	-	-	-
1605,21	새우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	-	-	-	-
1605,29	기타 새우	-	-	-	-	-
1605,30	바닷가재	-	-	-	-	-
1605,40	그 밖의 갑각류	-	-	-	-	-
1605,51	굴	-	-	-	-	-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	-	-	-	-	-
1605,53	홍합	-	-	-	-	-
1605,54	갑오징어, 오징어	-	42,677	35,810	20,644	99,131
1605,55	문어	-	-	-	-	-
1605,56	클램, 새조개, 피조개	-	-	-	-	-
1605,57	전복	-	-	-	-	-
1605,58	달팽이	-	-	-	-	-
1605,59	기타 연체동물	-	462	2,330	2,285	5,077
1605,61	해삼	-	18	5	-	23

2) 오징어를 잘게 찢어 그늘에서 말리거나 기계 건조시킨 가공식품으로 건어물의 일종이다. (위키 백과)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1605,62	성게	-	-	-	-	-
1605,63	해파리	-	-	-	-	-
1605,69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총합계		-	43,157	38,145	22,929	104,231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점차 감소하는 FTA 활용률

제1605호의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는 대부분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4.9%에 비하여 2014년 81.8%로서 약 1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갑오징어와 오징어의 수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20%의 FTA 활용률 역시 높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기타 연체동물은 100%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삼의 경우 2012년 수입시 FTA 활용률이 32.2%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해삼의 경우 수입금액이 크지 않아 FTA 활용으로 인한 혜택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1605호 FTA 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1605,10	게	-	-	-	-	-
1605,21	새우(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	-	-	-	-
1605,29	기타 새우	-	-	-	-	-
1605,30	바닷가재	-	-	-	-	-
1605,40	그 밖의 갑각류	-	-	-	-	-
1605,51	굴	-	-	-	-	-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	-	-	-	-	-
1605,53	홍합	-	-	-	-	-
1605,54	갑오징어, 오징어	-	94.9	91.6	81.8	90.7
1605,55	문어	-	-	-	-	-
1605,56	클램, 새조개, 피조개	-	-	-	-	-
1605,57	전복	-	-	-	-	-
1605,58	달팽이	-	-	-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1605.59	기타 연체동물	-	100.0	100.0	100.0	100.0
1605.61	해삼	-	32.2	100.0	-	37.4
1605.62	성게	-	-	-	-	-
1605.63	해파리	-	-	-	-	-
1605.69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	-
평균		-	94.9	92.1	83.3	91.1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페루산 오징어 원산지 증명서의 철저한 확인 필요

제1605호의 조제식료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제3류의 물품(어류, 갑각류 등)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605호의 조제식료품이 페루산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루산 오징어를 사용하여 조미오징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페루산 오징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원산지 증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페루연안에서는 2010년경부터 페루 해역의 라니냐 현상(저수온현상)으로 인하여 오징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오징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페루산 오징어의 저가신고로 인하여 관세포탈업체가 적발된 사례도 존재하였다.³⁾

페루산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로 페루산 오징어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칠레산 오징어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고 FTA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국내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페루산 오징어를 수입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커피 (제0901호)

• 산업동향 : 한풀 꺾인 국내 커피전문점과 커피 수입

제0901호의 커피는 우리나라의 對페루 주요 수입물품으로서 지난 3년간 총 1억4천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2011년에 5천4백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나

3) 부산세관, 페루산 오징어 관세포탈 업체 무더기 적발, 관세포탈한 14개 수입업체 검거.

수입금액은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3천7백만 달러, 2014년 상반기까지 9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은 -17.3%로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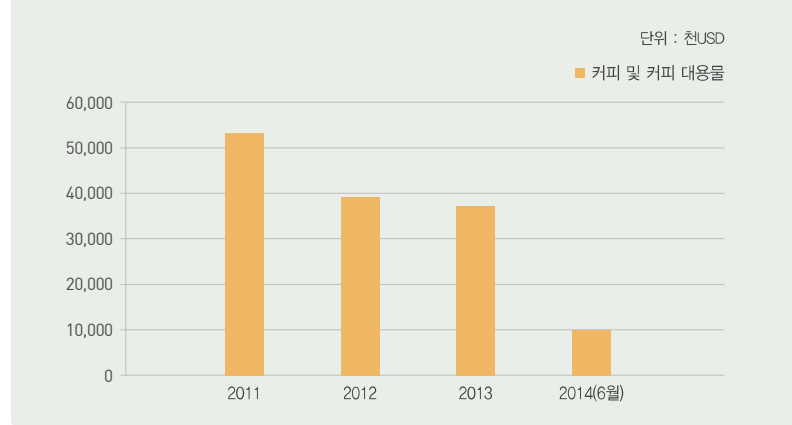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0901호 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0901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54,167	39,090	37,065	9,689	140,011	-17.3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11 우리나라 對페루 제0901호 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 FTA 활용금액 : 주요 수입커피는 커피 생두

제0901호의 커피는 일반적으로 '원두'로 불리는 것으로서 생커피와 볶은 커피, 커피의 껍질 및 기타 커피로 사용되는 대용물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커피는 제0901.11호의 볶지 않은 커피, 즉 생커피로서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커피는 수입 후 로스팅 공정을 거쳐 커피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제0901호의 커피는 세부적으로 볶지 않은 커피와 볶은 커피로 구분하며, 다시 카페인 제거 유무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커피는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지 않은 커피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12만 톤의 커피원두를 수입하는 커피수입국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을 수입한다. 최대 수입국은 2012년까지 브라질이었으나 한-아세안 FTA의 효과로 2013년부터 베트남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커피수입은 커피전문점 수와 비례관계에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은 2012년에 1만5,000개로 6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나, 최근 커피전문점의 포화로 인하여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두커피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로부터의 커피수입도 이러한 커피동향과 일치하는데, 2011년 발효 1년차에 가장 높은 수입금액을 나타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페인 미제거의 복지 않은 커피는 3년간 총 8천5백만 달러 수입되었다. 2011년에 3천8백만 달러 수입되었으나 이후 특혜수입은 점차 감소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총 9백만 달러 수입금액을 나타내었다.

제0901.21호의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도 수입되었으나 이는 FTA 특혜를 적용받지 않고 총 7만8천 달러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0901호 FTA수입동향(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K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0901.11	커피(카페인 미제거)	0	38,917	36,923	9,648	85,489
0901.12	커피(카페인 제거)	0	0	0	0	0
0901.21	볶은커피(카페인 미제거)	0	0	0	0	0
0901.22	볶은커피(카페인제거)	0	0	0	0	0
0901.90	기타	0	0	0	0	0
총 합계		0	38,917	36,923	9,648	85,489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사실상 대부분 FTA 활용한 수입 커피

제0901호의 커피 세부품목의 FTA활용률을 살펴보면 제0901.11호의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의 활용률이 99.5%로서 대부분의 물품이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커피의 경우 FTA활용률이 0%로 나타났는데, 특히

제0901.21호의 카페인 미제거의 볶은 커피는 수입금액이 7만8천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FTA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카페인을 제거한 볶지 않은 커피(제0901.12호)의 경우에도 9천4백 달러 수입시 FTA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0901호 FTA수입활용률(HS 6단위 기준)

단위 : %

HSK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0901.11	커피(카페인 미제거)	0	99.6	99.6	99.6	99.5
0901.12	커피(카페인 제거)	-	0	0	-	0
0901.21	볶은커피(카페인 미제거)	0	0	0	-	0
0901.22	볶은커피(카페인제거)	-	0	-	-	0
0901.90	기타	0	-	-	0	0
평 균			99.6	99.6	99.6	99.4

자료 : 관세청 자료로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가격 및 브랜드 인지도에서 아직 미흡한 페루산 커피

페루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커피로 유명한 국가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FTA의 체결과 국내 커피소비의 증가에 따라 페루커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페루는 원래 코카 잎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으나, 페루 정부의 마약재배 및 밀매를 퇴치하기 위하여 마약을 재배하던 지역을 커피와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장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페루의 커피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커피수확방식이 여전히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방식이고, 커피를 수출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도로시설도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페루의 커피가격은 다른 커피에 비하여 다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페루 FTA의 활용은 페루산 커피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4) 기본세율 2%, 한-페루 FTA 협정세율 0%

■ 우리나라 주요 커피수입국 커피단가 현황

국 가	금액(천 USD)	중량(톤)	단가(천 USD/톤)
전체	314,051	106,360	2.95
베트남	70,501	34,712	2.03
콜롬비아	47,972	13,549	3.54
페루	37,064	12,444	2.97

한-페루 FTA 제0901호의 커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다른 류에 속하는 커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를 충족한다. 그러나 제09류의 커피는 다른 류에 속하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제0901.11호의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생두의 경우 대부분 원산지를 충족하므로, 페루의 수출자는 페루산 커피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제0901.12호 및 제0901.21호의 커피 역시 페루산 커피를 이용한다면 한-페루 FTA를 적용받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FTA 수입 기대품목 (상위 30대 품목 중)

이하에서는 수입상위 30대 품목 중, FTA 활용률이 30%이하인 물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물품은 수입금액은 높고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이다.

이러한 물품은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수입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음으로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수입 상위 30대 품목 중 FTA 활용률이 30%이하인 물품은 제6109호의 티셔츠와 제6110호의 저지, 카디건, 제8112호의 인툼 등이 있다. 또한 활용률이 30%를 초과하는 품목이나, 최근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서, 제0811호의 냉동과실 및 냉동견과류(61.3%) 등이 있다.

1 티셔츠 (제6109호)**• 산업동향 : 일반 수입금액은 마이너스 추세**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30대 수입물품 중, FTA 활용률이 30% 이하인 물품으로서 제6109호의 티셔츠가 있다. 티셔츠는 수입금액순 18번째 물품이며, 최근 3년간 총 수입금액 9백5십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5.3%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6109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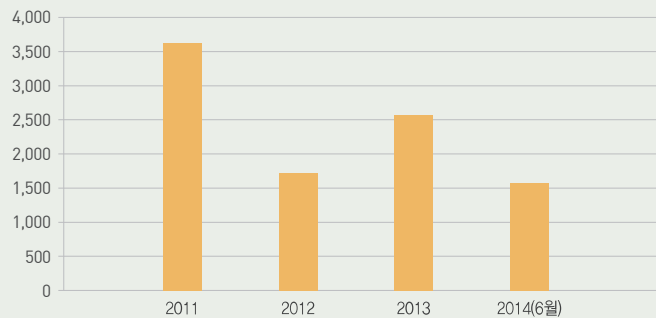
HS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연평균증가율
6109	티셔츠 · 싱글리트와 그 밖의 조끼	3,621	1,686	2,597	1,604	9,508	-15.3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12 우리나라 對페루 제6109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 티셔츠 및 싱글리트, 조끼



자료 : 무역협회

제6109호에는 티셔츠가 분류되는데, 티셔츠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것으로서 가볍고, 오프닝이 없는 넥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소매에 단추 또는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을 말한다. 티셔츠는 날염하거나 광고 그림을 가진 것이 많으며 밑단은 감쳐져(hemmed)있다.



제6109호는 크게 면으로 만든 티셔츠(제6109.10호)와 견이나 양모 및 기타 섬유로 만든 티셔츠(제6109.90호)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수입의 대부분은 면제의 티셔츠가 해당된다.

• FTA 활용금액 : 면제 티셔츠 FTA 활용금액의 증가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티셔츠의 수입금액은 2011년 발효시 약 5만8천 달러에서 2013년에 91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상반기까지만 약 70만 달러 수입하여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6109호 FTA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6109.10	면으로 만든 것	58	400	887	516	1,862
6109.90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	34	32	178	244
총합계		58	434	919	694	2,106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점차 증가하는 FTA 활용률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티셔츠의 FTA활용률은 29.2%이며 이중에서 면으로 만든 것(제6109.10호)이 28.4%, 기타의 것으로 만든 것(제6109.90호)이 36.7%로 나타났다. FTA활용률은 2011년 발효 초기 4.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활용률이 점차 증가하여 2014년의 경우에는 43.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6109호 FTA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균
6109.10	면으로 만든 것	4.8	26.4	35.9	38.2	28.4
6109.90	기타 방직용 섬유의 것	-	17.6	25.0	71.6	36.7
평균		4.4	25.4	35.4	43.4	29.2

자료 : 관세청 자료의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증가하는 FTA 활용 티셔츠 수입에 대한 원산지 확인 필요

미국-페루의 무역촉진협정(TPA)이 2009년에 발효되어 보다 광범위한 의류상품이 페루와 미국 양국 간에 무관세로 통관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페루간의 협정에서 의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기 때문에 페루는 역외에서 섬유를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페루는 양질의 면 생산국으로서 원사, 원단 등 의류의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다. 면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테리직물, 자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원단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페루산의 고품종 면화는 고급의류에 사용되며 주로 수출용 의류에 사용되지만, 페루 내수용으로는 수입면 및 저가 원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페루산 섬유를 사용하는 수출용 고품질 의류는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섬유의 충분한 물량공급이 FTA 활용에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페루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으로서 TPA협정에 따른 쿼터 물량 충족에도 생산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산 섬유물량 부족이 저조한 FTA활용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중국산이나 기타 남미산 원단을 사용한 비원산지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입자는 페루산 원재료 확인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2 인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8112호)

• 산업동향 : 페루에서 '13년 최초 수입된 인도 웨이스트와 스크랩

우리나라의 對페루 32번째 수입물품으로서 제8112호의 인도가 있다. 동 물품은 2011년 한-페루 FTA발효시 수입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1백4십만 달러, 2014년 상반기까지는 1백7십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다른 수입물품에 비하여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18.8%에 달하여 향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112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8112	인도의 과, 웨이스트, 스크랩	-	-	1,465	1,741	3,206	-

자료 : 무역협회



제8112호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卑) 금속이 포함되는데, 페루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제8112.92-5000호의 인듐(Indium)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다.

인듐은 원자번호 49번으로서 희귀한 금속이다. 인듐은 현대 전자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금속으로서 전자기기의 평판소자에 사용되는 산화인듐주석의 원재료이다. 인듐 광석은 희귀하여 좀처럼 발굴되지 않으며, 주로 아연 제련의 부산물로 얻는데,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듐은 아연 잔유물로 추출되는 금속으로서 연하고 은색을 나타내며 내식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속을 도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비스머드, 납, 주석과 합금하여 외과용으로 사용되고, 구리 및 납과 합금하여 베어링용으로, 금과 합금하여 치과용으로도 사용된다.

• FTA 활용금액 : '14년도 상반기 수입금액이 '13년도 연간 수입금액 초과

제8112호의 수입은 모두 제8112.92호의 인듐으로서 총 71만 달러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2년 수입은 전무하며, 2013년과 2014년에 약 34만 달러, 37만 달러 수입하였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112호 FTA 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8112,12	베릴륨 과, 가루	-	-	-	-	-
8112,13	베릴륨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19	기타 베릴륨	-	-	-	-	-
8112,21	크로뮴 과, 가루	-	-	-	-	-
8112,22	크로뮴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29	기타 크로뮴	-	-	-	-	-
8112,51	탈륨 과, 가루	-	-	-	-	-
8112,52	탈륨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59	기타 탈륨	-	-	-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8112,92	기타 과, 웨이스트, 스크랩	-	-	342	373	715
8112,99	기타	-	-	-	-	-
총합계		-	-	342	373	715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FTA 활용률은 소폭 감소에 그침

제8112,92호의 인듐의 수입시 FTA를 적용한 비율은 총 22.3% 으로, 2013년 23.3%, 2014년 상반기 21.4%로 나타났다. 총 FTA 수입대상금액인 3백2십만 달러 중 71만 달러만 FTA를 활용하여 수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산지기준 불충족 또는 미활용 등의 이유로 특혜적용을 받지 않았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8112호 FTA 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8112,12	베릴륨 과, 가루	-	-	-	-	-
8112,13	베릴륨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19	기타 베릴륨	-	-	-	-	-
8112,21	크로뮴 과, 가루	-	-	-	-	-
8112,22	크로뮴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29	기타 크로뮴	-	-	-	-	-
8112,51	탈륨 과, 가루	-	-	-	-	-
8112,52	탈륨 웨이스트, 스크랩	-	-	-	-	-
8112,59	기타 탈륨	-	-	-	-	-
8112,92	기타 과, 웨이스트, 스크랩	-	-	23.3	21.4	22.3
8112,99	기타	-	-	-	-	-
평균		-	-	23.3	21.4	22.3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원산지 확인 어려움에 따른 FTA 활용률의 저조

인뚝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물품인 반도체와 TV, 가전제품 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금속이다. 그러나 생산이 쉽지 않고 공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스크랩이나 웨이스트에서 재활용을 통하여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인뚝 스크랩 수입국이며 세계 3위의 인뚝수출국이다. 즉, 우리나라는 인뚝 스크랩을 수입하여 정제한 인뚝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국가별 정제한 인뚝 생산량을 나타낸 표이다.

■ 정제한 인뚝 국가별 생산량

단위 : 톤, %

	2012	2013	비 중
중국	405	410	53.2
한국	165	150	19.5
일본	71	71	9.2
캐나다	62	65	8.4
벨기에	30	30	3.9
기타	25	25	3.2
러시아	13	13	1.7
페루	11	10	1.3
합계	782	770	100.0

자료 : USGS

인뚝 웨이스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에서 선택하여 적용한다. 인뚝제조 특성상 주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스크랩으로서 얻는 경우가 많다.

인뚝의 저조한 FTA 활용률은 제품의 형상이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다른 제품의 제조과정중에서 얻어지는 물품이므로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제조공정이나 가격, 품목번호 등의 확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자는 인뚝의 수입시 수출자와 상호 협의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도록 협조하여 FT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정별로 규정된 완전생산기준(웨이스트·스크랩 등)을 적용하여 FTA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3 냉동망고(제0811호)

• 산업동향 : FTA 발효 이후 수입 2배 이상 증가한 냉동망고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입물품으로서 총 수입금액 5백만 달러의 냉동과실과 견과류는 26번째 수입물품이다. 2011년 30만 달러 수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142만 달러를 수입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약 2배가량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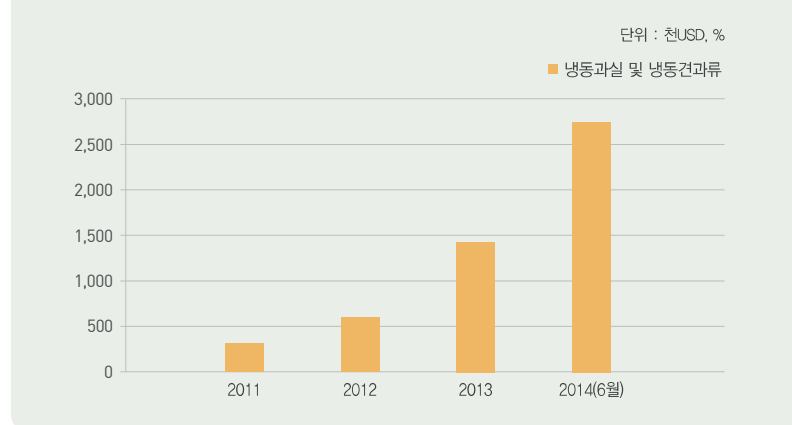
■ 우리나라 對페루 제0811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단위 : 천USD, %

HS	품명	2011	2012	2013	2014(6월)	합계	연평균증가율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	303	578	1,419	2,728	5,028	116.4

※ 연평균증가율 기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림 13 우리나라 對페루 제0811호 일반수입동향 (HS 4단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제08류에는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가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신선한 과실로부터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과 일시저장처리한 것이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FTA 특혜를 받아 수입하는 제0811호의 과실은 냉동망고이다.

• **FTA 활용금액 : 2014년 상반기 FTA 활용금액은 2년 전의 10배**

우리나라의 제0811호 냉동과실의 FTA 수입금액은 지난 3년간 총 2백9십만 달러 수준이며 이 금액 중 2백2십만 달러는 2014년 상반기에만 수입된 금액이다. 반면, 2011년에는 수입이 없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도 합계 70만 달러 수준에 그친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0811호 FTA 수입동향 (HS 6단위 기준)**

단위 : 천USD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합 계
0811.10	초분류 딸기	-	-	-	-	-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등	-	-	-	-	-
0811.90	기타	0	221	507	2,236	2,963
총합계		0	221	507	2,236	2,963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TA 활용률 : 큰 폭의 FTA 수입활용률 증가**

우리나라가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망고의 FTA활용률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11년에는 약 11만 달러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나 FTA활용은 전무하였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81.9%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 對페루 제0811호 FTA수입활용률 (HS 6단위 기준)**

단위 : %

HS 6	품 명	2011	2012	2013	2014 (6월)	평 균
0811.10	초분류 딸기	-	-	-	-	-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등	-	-	-	-	-
0811.90	기타	0	38.2	35.7	81.9	61.3
평 균		0	38.2	35.7	81.9	61.3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결 : 관세인하로 인한 페루산 망고의 가격경쟁력 상승**

최근 국내 대형마트에서 망고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망고의 매출 순위는 11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으며 매출 신장률은 48%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거 이색과일로 취급되던 것이 FTA로 인하여 대중화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과일이 되었고, 또한 주요 대체품목인 오렌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망고를 찾는 것이 국내 매출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오렌지의 경우 2013년 북미지역의 한파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였고 수입물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루산 망고가 다른 FTA 협정에 비하여 협정세율이 낮은 것도 높은 수입증가율의 원인이 된다. 제0811.90-9000호의 경우 우리나라 주요 망고 수출국인 필리핀과 태국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30%인 반면, 페루는 6%로 세율차이가 크다. 기타 미국이 17.1%, EU가 15% (2014년 6월 이전기준), 칠레의 경우 0%의 관세가 부과된다.

기타 페루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망고의 경우, 수입위생조건상 여러 가지 수입조건이 부과된다는 점도 페루산 망고와 기타 원산국 망고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망고의 국가별 수입위생조건 현황

국 가	주요수입조건
대만	생산지에서 증열처리(46.5℃에서 30분간) 한국 식물방역관의 현지검역 등
필리핀	생산지에서 증열처리(46~47℃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등
태국	생산지에서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등
호주	등록된 한국 수출용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망고 생과실로서, 재배중 병해충 예찰 및 증열처리(47℃에서 15분간)되고,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확인된 화물이어야 함
파키스탄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는 온탕침지처리(48℃에서 60분 이상),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 검역 등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	생산지에서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등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04

한-페루 FTA
향후 활용방안

지금까지 본 장에서 주요 수출입품목을 중심으로 한-페루의 FTA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MTI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10대 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의 경우, 수출은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입은 특정 산업군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수출 FTA 활용률은 잡제품(2.9%)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산업군에서 모두 30%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의 경우 산업간 편차가 매우 커, 5개 산업군(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의 활용률이 90% 이상이나 3개의 산업군(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잡제품)에서는 전혀 FTA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품목별 FTA 활용률의 경우, 오히려 수출물품의 FTA 활용도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페루 상위 30대 수출물품 중 9개 품목에 대해서만 FTA 수출이 있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상위 30대 수입물품 중 21개 품목에 대해서 FTA 수입이 있었다.

수출 상위 30대 품목 중 FTA를 활용한 9개 품목의 FTA 활용률은 대부분의 품목이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률이 낮은 수출품목인 백신(13.4%)과 주사용 바늘(9.0%)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입 상위 30대 품목 중 FTA를 활용한 21개 품목에는 수입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으로서 석유가스 등(100%), 커피(99.4%) 조미오징어(91.1%) 등이 있으며, 수입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으로서 냉동망고(61.3%), 티셔츠(29.2%), 인뿔(22.3%) 등이 있다.

종합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FTA 활용금액은 크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다양한 품목에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품목은 기존 FTA 활용 업체의 활용률 증진보다는 신규 품목의 FTA 적용이 중요하며, 수입의 경우 새로운 물품의 FTA 적용보다는 기존 수입 FTA 활용물품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레저용품의 FTA 활용 동향

권민경 주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01

분석배경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캠핑 붐' 등 여가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레저용품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60만 명으로 집계된 캠핑인구는 지난해 130만 명으로 늘어 올해 200만~300만 명을 내다보고 있으며, 시장규모 역시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저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레저용품의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다. 레저용품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미국·유럽 등 고가 제품국과 중국·동남아시아 등 저가 제품국으로 구분된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레저용품의 시장규모가 확대 된 것에는 FTA의 확산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레저용품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수입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물품의 협정별 수입금액·비중 및 FTA 활용 동향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레저용품 중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수입통계는 HS 품목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하되 품명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으로 무역동향 분석에 활용되는 산업별·품목별 수출입분류 체계인 MTI 코드를 활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은 골프공, 골프채, 낚시 릴, 등산화, 자전거, 자전거 부품, 텐트 및 캠핑용품 등 총 7개 품목이다.

분석 시기는 2014년 10월 말까지의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의 수입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때 전년 동기 대비 분석이 가능하도록 2012년 및 2013년의 수입 금액도 10월 말까지의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하였다.

단위 : 천 달러

품 명	HS code	MTI code	2014 총 수입금액
골프채	9506.31, 9506.39	541410	242,564
자전거	8712.00, 8713.10 8713.90	743300	202,088
텐트 및 캠핑용품	6306.12, 6306.19 6306.22, 6306.29 6306.30, 6306.40 6306.90	449007	89,397
자전거 부품	8714.20, 8714.91 8714.92, 8714.93 8714.94, 8714.95 8714.96, 8714.99	743400	111,569
골프공	9506.32	541420	52,505
등산화	6403.91, 6403.99	512100	38,180
낚시 릴	9507.10, 9507.20	542110	16,834



02

레저용품의 FTA 수입활용 동향

골프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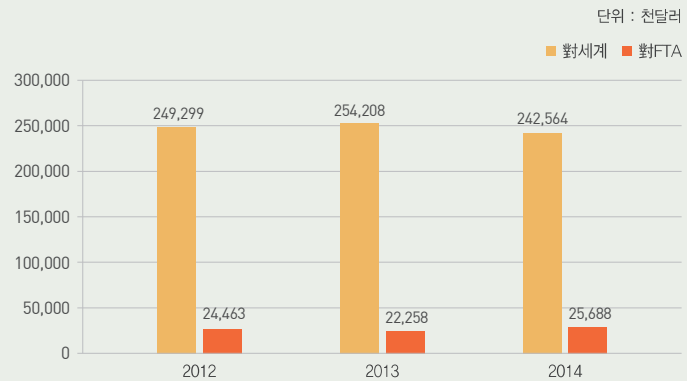
• 총 수입

2014년 골프채의 총수입은 2억 4천 2백만달러,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2천 5백만 달러이다. 최근 3년 평균수입 금액은 2억 4천 9백만 달러로 레저용품 중에서 수입규모가 가장 크다. 골프채의 경우 고급 골프채와 저가의 골프채로 구분되어 수입되는데 일반적으로 골프채 수입의 60%는 고가의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다.

골프채는 최근 3년간 수입변동이 크지 않고 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내외로 그 비중이 적은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골프채의 주요수입국이 일본과 중국으로 비체약국인 일본산 수입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체로 일본산은 고가의 완성품이 수입되고 중국산의 경우 저가제품과 미완성 상태의 골프채가 많이 수입되고 있어 제품군에 뚜렷한 구분이 있다. 최근 실질적 타결을 이룬 한-중 FTA가 발효되면 현재의 골프채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특혜관세 혜택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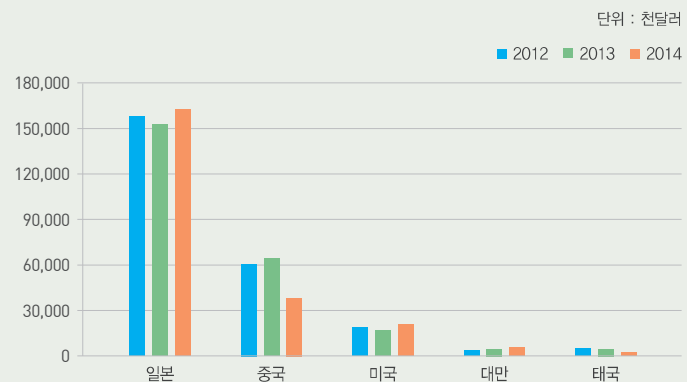


그림 1 골프채의 총 수입동향

자료 : KITA

국가별 골프채 수입실적은 2014년 기준 일본 1억 6천 9백만 달러, 중국 4천 2백만 달러, 미국 2천 1백만 달러이다.

골프채 수입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은 올해 전년대비 10%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수입규모 2위인 중국은 34% 감소하였다. 한편 FTA 상대국인 미국과 태국산 골프채는 2014년 전년대비 각각 21%증가, 37% 감소 하였다.

그림 2 골프채 국가별 수입동향

자료 : KITA

• FTA 수입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골프채의 동향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골프채의 총수입에서 FTA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일본산과 중국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FTA 상대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골프채는 미국산과 아세안산이 주를 이루고 EU로 부터의 수입은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2014년 기준 FTA 특혜수입은 미국산은 1천 7백만 달러, 아세안산은 1.2백만 달러 수입되었다. 수입실적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2천 4백만 달러로 2013년 소폭 감소하였을 뿐 평균 수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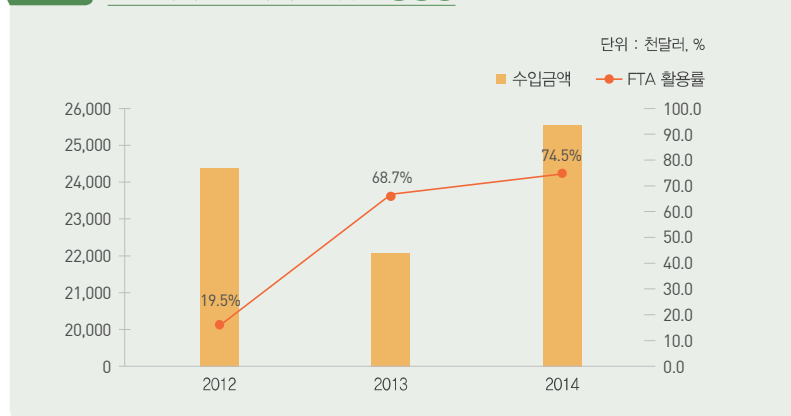
지난 3년동안 FTA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실적은 변동이 적은 반면에 FTA 활용률은 2012년 19.5% → 2013년 68.7% → 2014년 74.5%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미 FTA 발효 1년 차인 2012년에는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가 이행연차를 거듭하면서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단위 : 천 달러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24,463	4,645	19.5%	22,258	14,556	68.7%	25,688	18,483	74.5%
미국	18,150	2,319	13.2%	17,705	12,597	75.6%	21,536	17,213	83.2%
아세안	5,822	2,313	39.7%	4,333	1,943	44.9%	3,639	1,229	33.8%
EU	455	13	2.9%	182	15	8.5%	481	41	8.6%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3 골프채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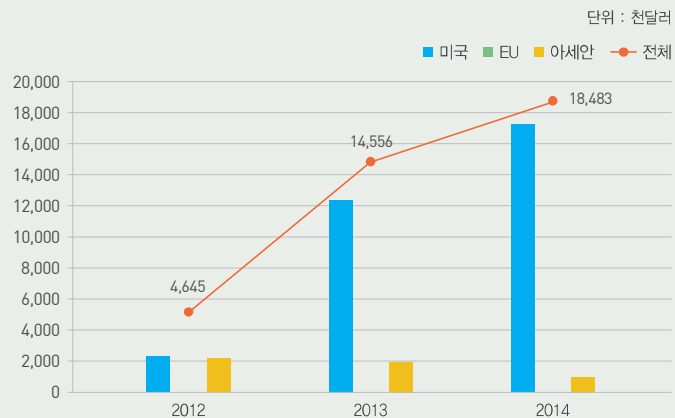


골프채의 FTA 특혜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FTA 특혜적용 수입은 2012년 2백만 달러, 2013년 1천 2백만 달러, 2014년 1천 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013년 443%, 2014년 37%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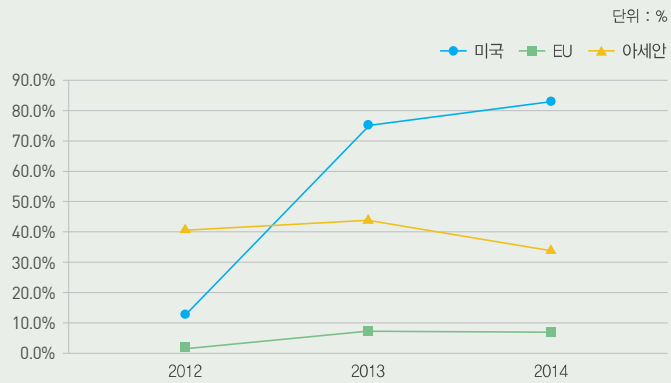
하지만 아세안의 경우 특혜적용 실적이 2012년 2,3백만 달러, 2013년 1,9백만 달러, 2014년 1,2백만 달러로, 2013년 16%, 2014년 37%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미국산 골프채의 경우 FTA 발효이후부터 수입증가와 더불어 FTA 활용률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과 더불어 고급 골프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산은 한-미 FTA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향후 FTA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골프채 협정별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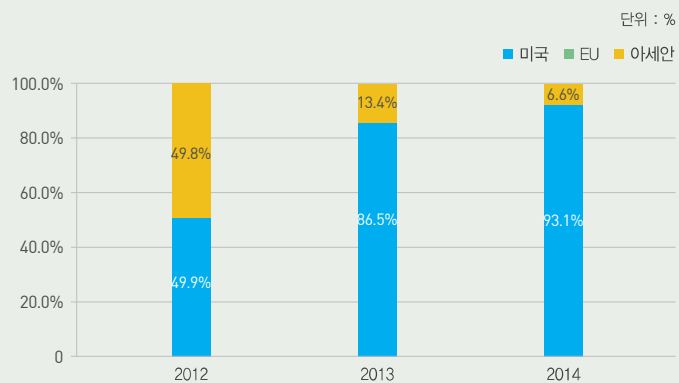


협정별로 FTA 활용률을 살펴보면 한-미 FTA의 활용률은 (2012년 13%, 2013년 76%, 2014년 83%)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한-EU FTA는 수입금액과 활용률이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아세안의 경우 FTA 활용률이 3년 평균 40%수준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그림 5 골프채의 FTA 활용률

골프채 FTA 특혜수입의 협정별 분포는 미국과 아세안이 양분하고 있다. 2012년 한-미 FTA 이행 1년차에는 미국과 아세안이 50%의 비중으로 차지하였으나 2013년 87%, 2014년 93%으로 미국산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아세안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산 부품의 유입이 많은 아세안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워 FTA 활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6 골프채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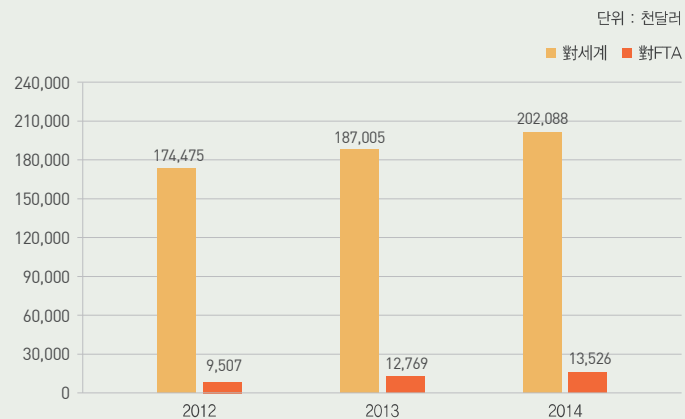
• 총 수입

국내 자전거 수입은 1994년까지만 해도 1년간 10만대 미만이던 수입물량이 1995년부터 14만대로 늘어났다. 이후 2001년까지 연간 10~50만대의 수입량을 유지하다가 2002년부터 연간 100만대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른바 ‘바이크 붐’이 일면서 최근에는 자전거 수입량도 170~180만대로 증가하였지만 무엇보다 자전거 매니아층의 소비변화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자전거 수입금액은 2009년 1억 4천 달러에서 2012년 1억 7천 달러로 매년 연평균 7%이상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0월말까지 집계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수입금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중 FTA 상대국은 10%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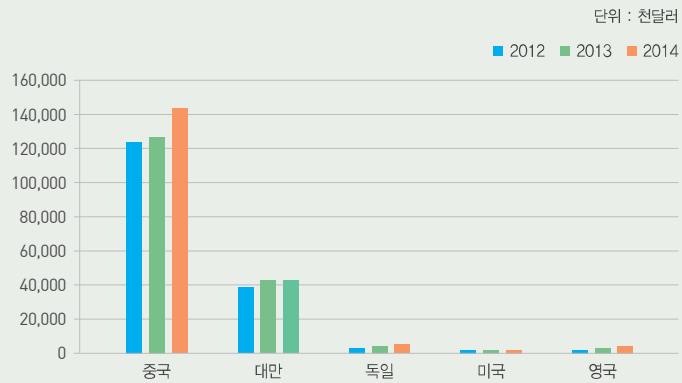
그림 7 자전거의 총 수입동향



자료 : KITA

우리나라가 자전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금액 및 물량 기준 모두 중국이 압도적이다. 중국산 자전거 수입은 2012년 1억 2천 6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4천 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고가 자전거의 경우 주로 대만, 독일, 영국산으로 중국산의 뒤를 잇고 있다.

그림 8 자전거의 주요 수입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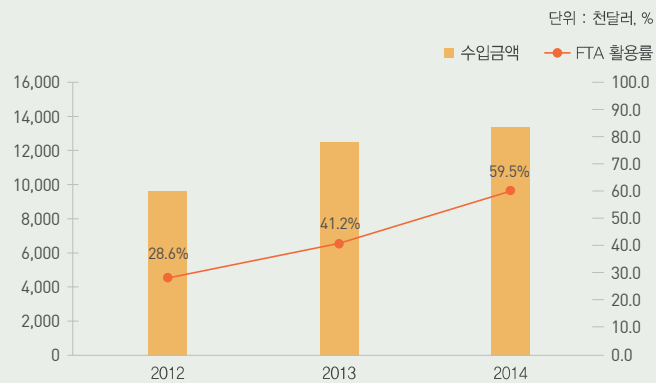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9,507	1,821	28.6%	12,769	3,409	41.2%	13,526	6,270	59.5%
EFTA	8	6	100%*	149	0	0%	60	3	11.3%
EU	6,713	1,764	32.0%	8,923	3,282	44.0%	11,046	5,896	63.7%
미국	1,850	51	6.0%	1,634	127	18.0%	2,128	370	29.7%
아세안	933	0	0%	2,060	0	0%	289	0	0%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FTA활용률은 FTA 특혜적용수입금액 / FTA 특혜대상품목 수입금액×100으로 총수입실적과 FTA 특혜대상 수입실적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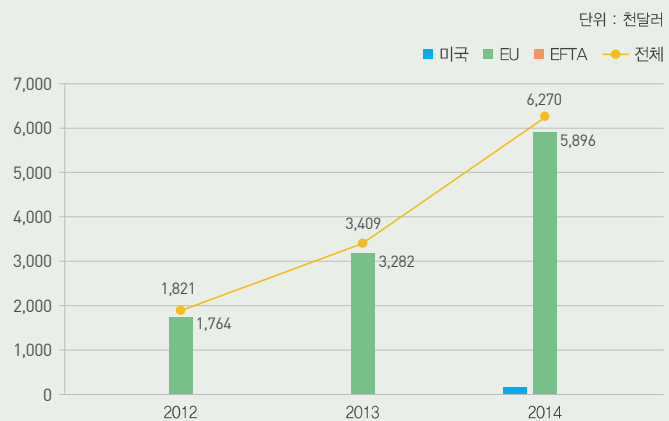
자전거의 FTA 수입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9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FTA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2013년 1천 2백만 달러, 2014년 1천 3백만 달러이다. 증가율은 2013년 전년대비 35%증가하였고 올해도 소폭(5%) 상승하였다.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늘어남과 동시에 FTA 활용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다. 2012년 29%에 불과하던 FTA 활용률은 올해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9 자전거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협정별 주요 특혜수입 국가를 살펴보면 EFTA와 미국은 수입규모가 미미하고 EU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EU산의 특혜 수입은 2012년 1,7백만 달러, 2013년 3,2백만 달러, 2014년 5,8백만 달러로 매년 5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가자전거의 주요 수입처인 독일 및 영국산 자전거 구매가 늘어나면서 수입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자전거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각 협정별 활용률을 살펴보면 특혜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U산의 경우 협정이 발효한 당해 연도인 2012년은 32%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활용률이 증가하여 올해는 6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32% → 44% → 64%) 미국역시 수입규모는 EU에 비하여 미미하지만 매년 활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6% → 18% → 30%)

FTA 특혜를 받아 수입한 자전거의 협정별 분포는 EU가 평균 95%이상으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FTA 특혜를 적용받은 대부분의 자전거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자전거의 FTA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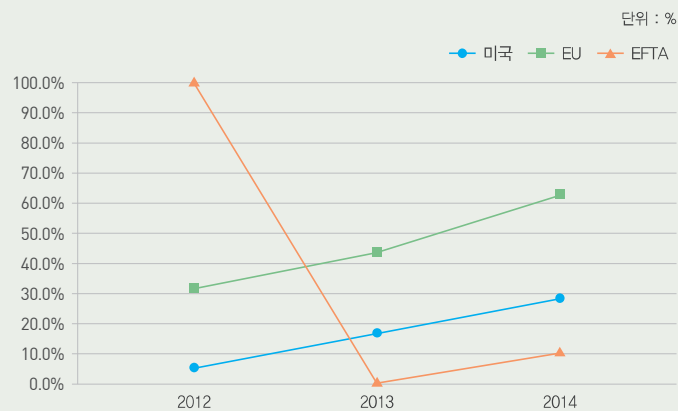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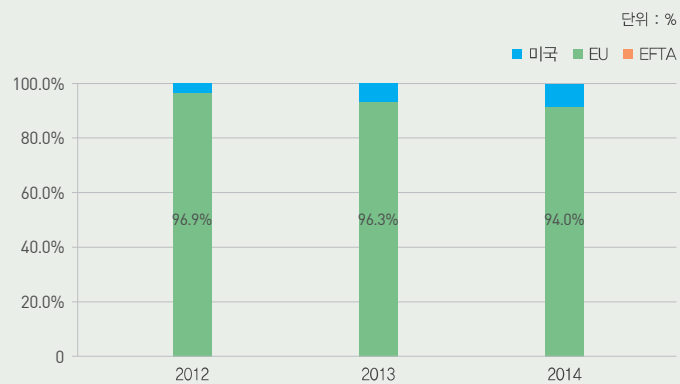


그림 12 자전거의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텐트 및 캠핑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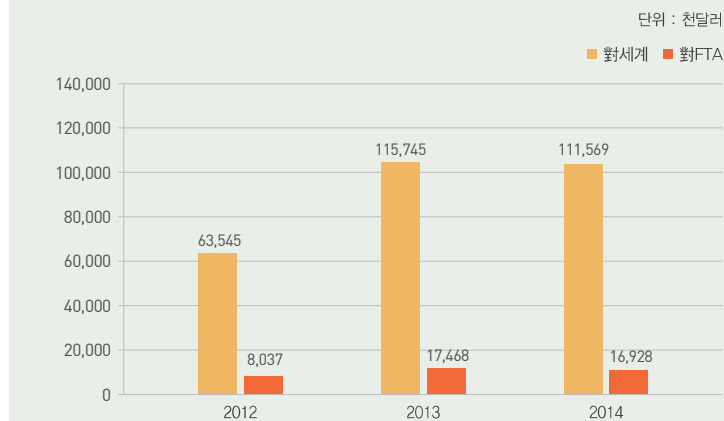
• 총 수입

최근 몇 년간 캠핑 열풍이 불면서 국내 캠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캠핑시장은 매년 1000억 원 가량씩 매출이 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6000~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캠핑인구도 약 300만 명에 달해 캠핑용품은 2012년 이미 골프용품을 제치고 등산용품에 이어 레저용품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텐트를 중심으로 하는 캠핑용품의 다양한 수요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텐트 및 캠핑용품의 수입동향을 보면 2012년 6천 3백만 달러에서 2013년 1억 1천 6백만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올해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 역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텐트 등의 수입의존 심화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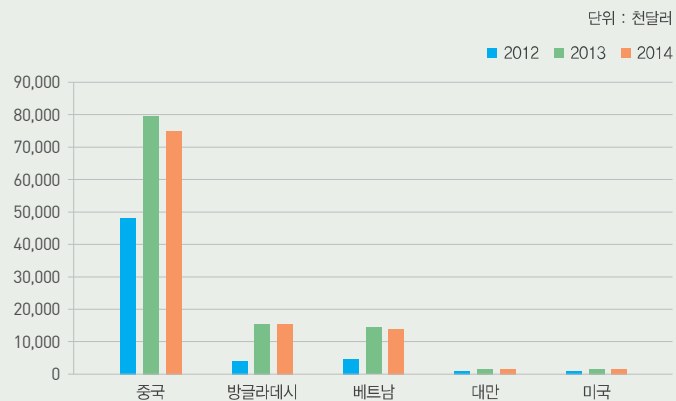
그림 13 텐트 및 캠핑용품의 총 수입동향



자료 : KITA

텐트 등의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대만, 미국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2년 대비 2014년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으로부터 각각 177%, 155% 수입이 급증한 변화가 포착 된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2012년 4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천 6백만 달러, 베트남 역시 2012년 5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천 4백만 달러로 수입실적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14 텐트 및 캠핑용품의 주요 수입 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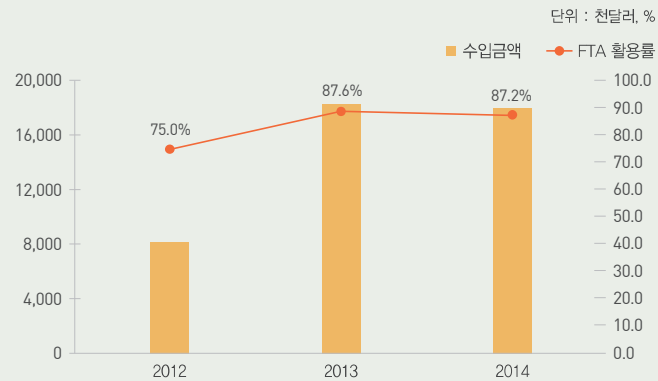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8,037	5,932	75.0%	17,468	15,102	87.6%	16,928	14,645	87.2%
미국	912	295	37.0%	1,368	558	48.1%	1,284	531	45.7%
EU	1,451	524	36.4%	1,699	784	46.7%	1,518	705	46.7%
아세안	5,636	5,104	90.6%	14,381	13,760	95.7%	14,085	13,385	95.0%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텐트의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수입규모가 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현재 2배 이상 증가한 1천 7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입금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FTA 활용률도 75% → 87%로 10%p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5 텐트 및 캠핑용품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텐트 등의 FTA 특혜수입은 2013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8백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1천7백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협정별로는 EU, 미국, 아세안 중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아세안의 경우 2012년 5백만 달러의 특혜수입 실적이 있었으나 2013년 폭증하여 약 1천 4백만 달러의 특혜수입 증가를 보였다.

협정별 FTA 활용률도 미국 및 EU는 3년 평균 50%이하의 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은 평균 90% 이상의 매우 높은 활용률을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텐트 등은 대부분 FTA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16 텐트 및 캠핑용품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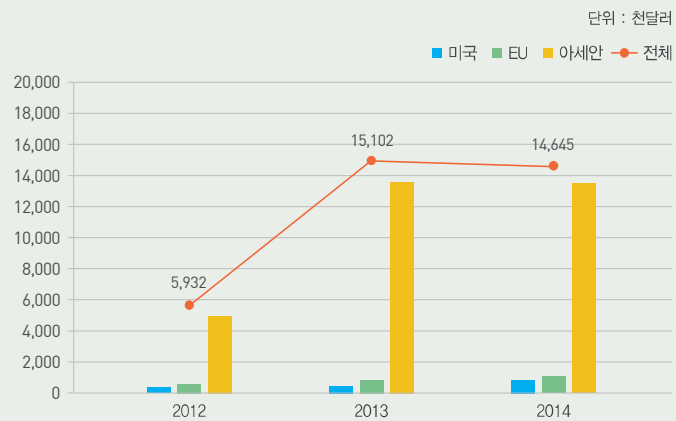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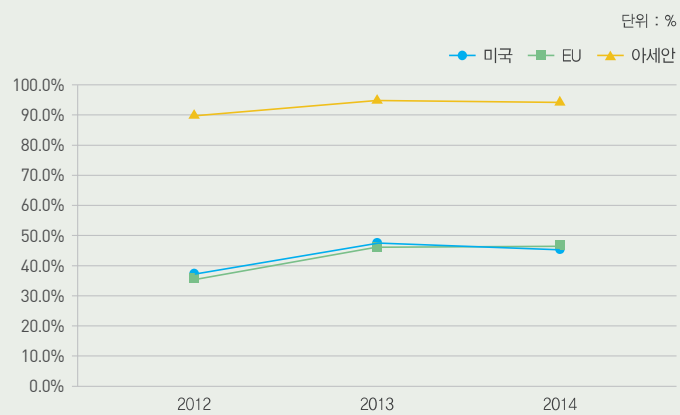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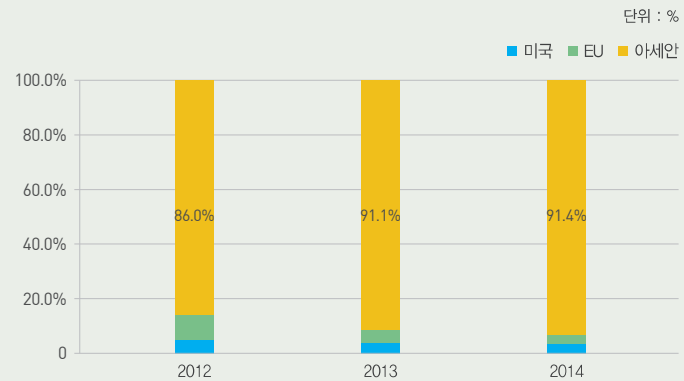


그림 17 텐트 및 캠핑용품의 FTA 활용률



FTA 특혜를 받아 수입된 텐트 등은 아세안 협정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미국 및 EU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아세안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8 텐트 및 캠핑용품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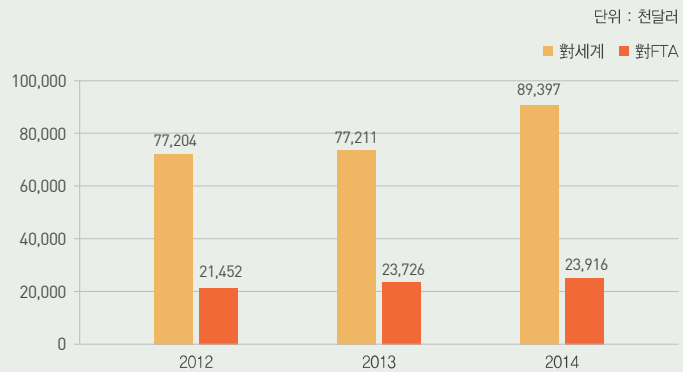
자전거 부품

• 총 수입

국내 자전거 판매량은 2008년 180만대 수준에서 2012년 250만대를 넘어서며 4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고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전거 대수는 1,000대 안팎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부품업체는 2003년 14개에서 2005년 10개, 2007년 3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70여 개 부품업체가 있던 1980년대와는 대조가 되는 실정이다. 결국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의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완제품인 자전거는 국내 주요 생산업체의 판매가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자전거 부품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자전거 부품은 레저용품 중에서 수입규모 4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년보다 16% 증가한 8천9백만 달러가 수입되었다. 자전거 부품의 FTA 국가로부터 수입은 총수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 2천3백만 달러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9 자전거 부품의 총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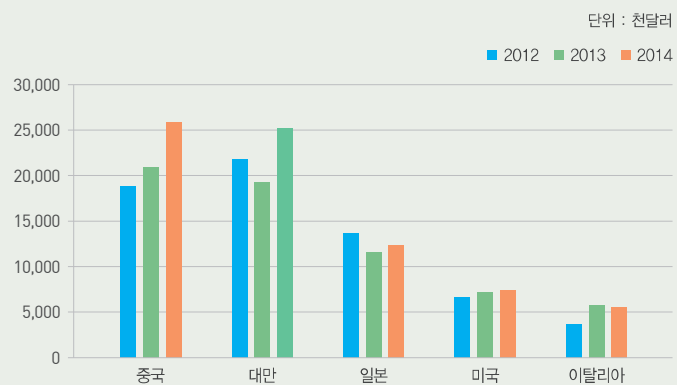


자료 : KITA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난다. 2014년 총수입 실적 8천 9백만 달러 중 중국산은 2천 6백만 달러, 대만산은 2천 5백만 달러이다. 2014년 기준 총수입 대비 수입비중이 중국산 30%, 대만산 28%로 전체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본산의 수입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FTA 상대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적은 폭이지만 꾸준히 수입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20 자전거 부품의 주요 수입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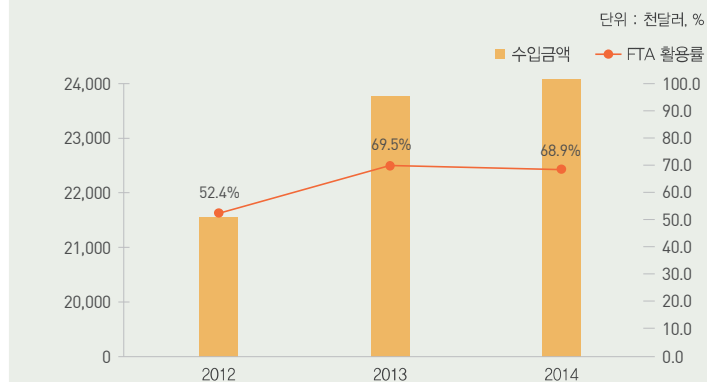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21,452	9,019	52.4%	23,726	13,729	69.5%	23,916	12,829	68.9%
EU	9,405	3,982	45.7%	11,368	6,978	64.4%	10,627	5,835	58.1%
미국	7,613	4,349	60.7%	8,385	6,312	80.5%	8,555	6,780	86.1%
아세안	3,107	0	0%	2,901	0	0%	3,998	0	0%
EFTA	764	561	73.5%	442	314	71.2%	599	169	28.1%
싱가포르	555	127	22.9%	557	58	10.4%	125	38	34.3%
인도	8	0	0%	9	2	27.9%	8	4	51.0%
터키	0	0	0%	64	64	100%	3	3	100%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자전거 부품의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2012년 2천 1백만 달러에서 2013년 2천 3백만 달러로 11% 증가하고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수입규모를 보이고 있다. 연차별 FTA 활용률은 2012년 52%, 2013년 70%, 2014년 69%로 2012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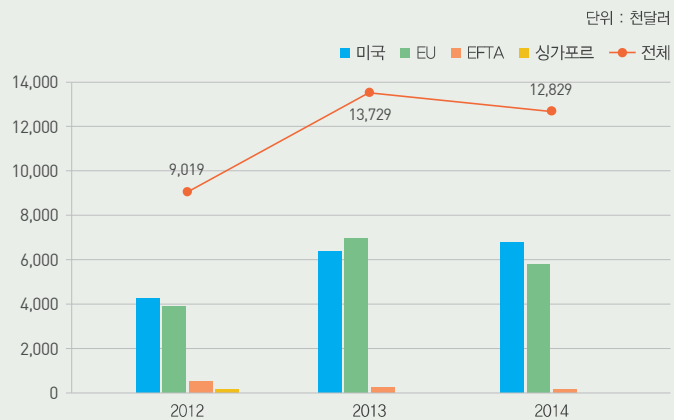
다른 레저용품의 경우 FTA 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대다수 미국, 아세안, EU 협정으로 한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자전거 부품의 경우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EFTA, 싱가포르, 인도, 터키 등 다양한 협정상대국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21 자전거 부품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협정별로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EU와 미국산이 전체 특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산은 2012년 3,9백만 달러에서 2014년 5,8백만 달러, 미국산은 2012년 4.3백만 달러에서 2014년 6.8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22 자전거 부품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협정별 FTA 활용률 검토결과, 수입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2012년 61%에서 2014년 86%로 계속하여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규모 2위인 EU의 경우 미국보다는 다소 낮은 활용수준으로 평균 60% 내외 수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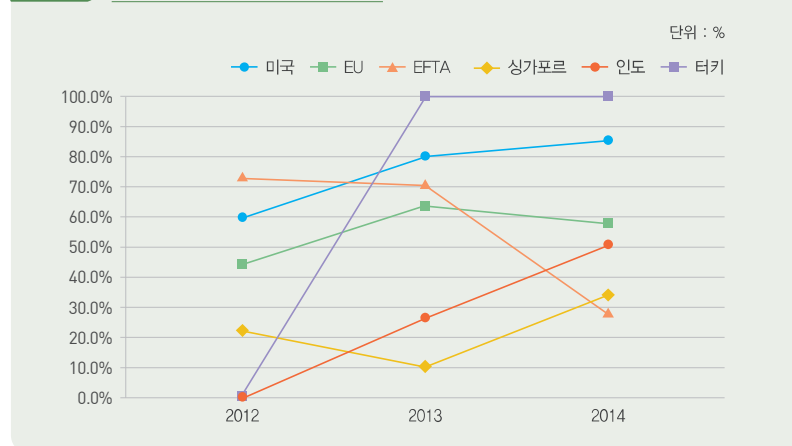
특징적인 것은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한 자전거 부품의 수입규모가 3위에 달하는데 단 한건의 FTA 활용 실적이 없다는 점이다. 아세안으로 부터 연평균 3백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지만 최근 3년 모두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은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전거 부품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협정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아세안의 특혜적용이 저조한 이유는, 동남아의 경우 대체로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역외산 재료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요 수입국 외에 EFTA, 싱가포르, 인도, 터키로부터도 소규모 수입실적이 존재하는데 EFTA의 경우 2014년 FTA 활용률이 전년의 71%에서 28%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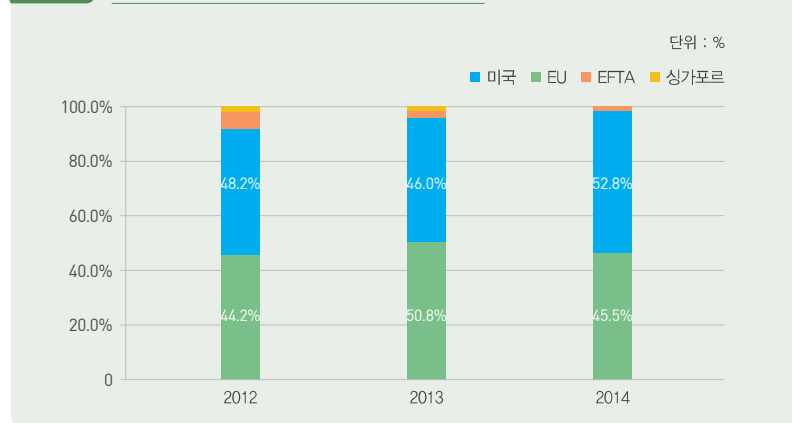
급감하였고, 터키의 경우 수입규모는 매우작지만 FTA 활용률은 100%에 달하는 특이점이 있다.

그림 23 자전거 부품의 FTA 활용률



자전거 부품의 협정별 FTA 수입 비중은 미국과 EU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로 양 협정의 비중은 큰 차이 없이 평균적으로 각각 50% 내외로 양분되어 있다. 다만 2012년에는 EFTA 등 기타 협정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고 2014년에는 미국과 EU로 부터의 특혜수입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24 자전거 부품의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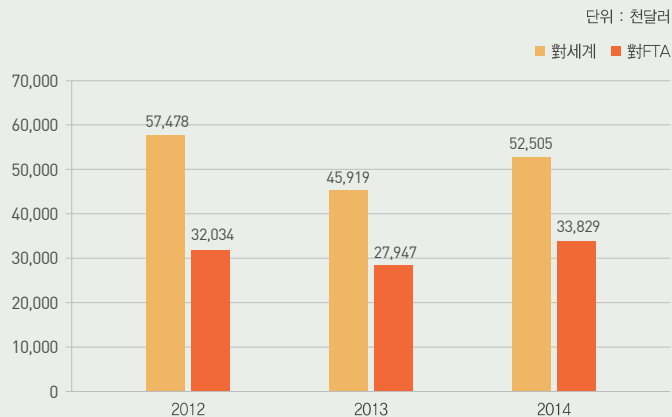
골프공

• 총 수입

최근 3년간 골프공 평균 수입금액은 5천 1백만 달러이다. 2013년 4천 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12%) 하였다가 올해 25% 증가한 5천 2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실적은 2014년 현재 약 3천 4백만 달러로 총수입 실적 5천 2백만 달러의 64%를 차지한다. FTA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2012년 3천2백만 달러, 2013년 2천8백만 달러, 2014년 3천 4백만 달러로 2013년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으나 2014년 21%증가로 전환되었다.

그림 25 골프공의 총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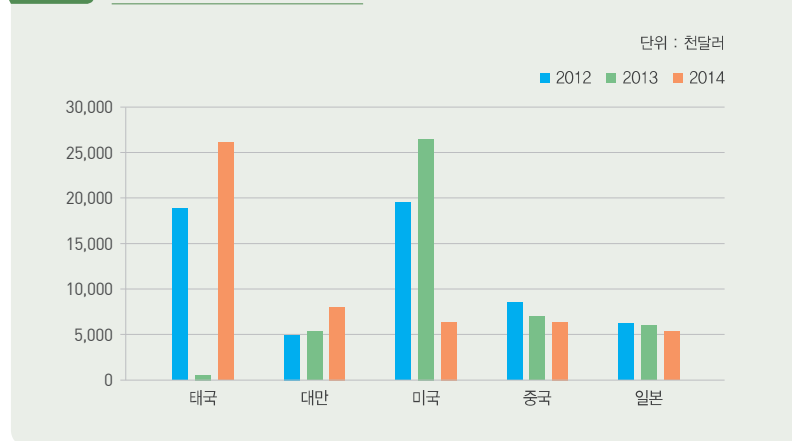
자료 : KITA

골프공 주요 수입국은 태국,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난다. 2012년과 2013년 미국산의 수입실적이 각각 2천만 달러, 2천 7백만 달러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였다. 그러나 태국산 수입실적이 2014년 2천 6백만 달러로 폭증 하면서 2014년 총수입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태국으로 나타난다.

태국산 골프공은 2012년 1천 8백만 달러에서 2013년 7십만 달러로 96% 수입급감 하였으나 2014년 2천 6백만 달러로 3600%이상 증가하면서 비정상적 수입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태국으로 부터의 수입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대만,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26 골프공의 주요 수입 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최근 3년간 골프공이 수입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달러

국가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FTA 전체	32,034	9,657	30.2%	27,947	5,330	19.1%	33,829	25,798	76.3%
미국	13,015	5,473	42.1%	26,399	3,872	14.7%	6,528	5,253	80.6%
EU	6	-	5.9%	22	1	3.0%	13	3	22.0%
아세안	19,008	4,183	22.0%	1,516	1,458	96.0%	27,281	20,542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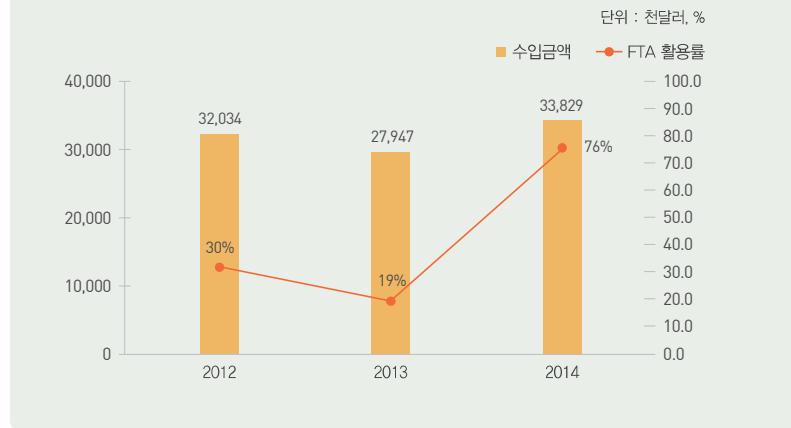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FTA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3천 2백만 달러, 2013년 2천 8백만 달러, 2014년 3천 4백만 달러 수입하였다. 수입금액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지만, FTA 활용률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30%), 2013년(19%) 모두 FTA 활용률이 50%

미만이었음에 반해 올해 76%로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은 골프공의 수입이 큰 폭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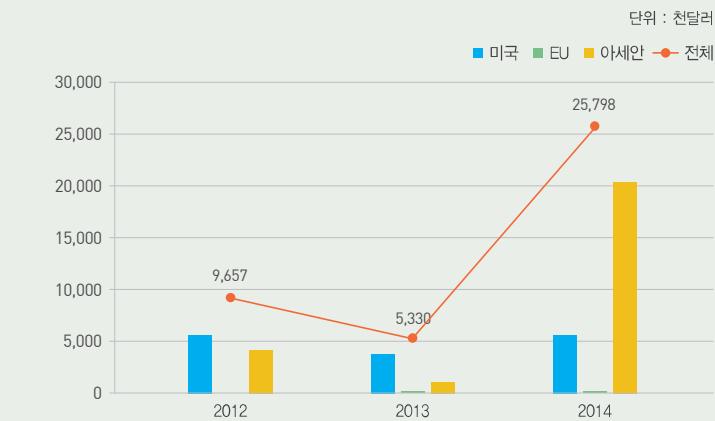
이는 2014년 수입국 변화와 한-아세안 FTA 활용률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미국산 골프공의 수입실적이 높았으나 올해 태국산 수입이 전년대비 폭증하였다. 더불어 태국산 골프공의 대부분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으면서 FTA 활용률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림 27 골프공의 FTA국 수입 및 활용 동향



레저용품 FTA 특혜수입은 미국, EU,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골프공의 경우 미국과 아세안이 주를 이룬다. 종래 EU산의 특혜수입은 미미하고 미국과 아세안의 FTA 특혜수입이 평균 5백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년 아세안의 FTA 특혜수입이 총수입실적과 마찬가지로 2013년(1.5백만 달러), 2014년(2천 1백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10% 폭증한 특징을 보인다.

그림 28 골프공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골프공의 연도별·협정별 FTA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대체로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FTA 이행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FTA 활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3년간의 FTA 활용에서 미국과 아세안이 반비례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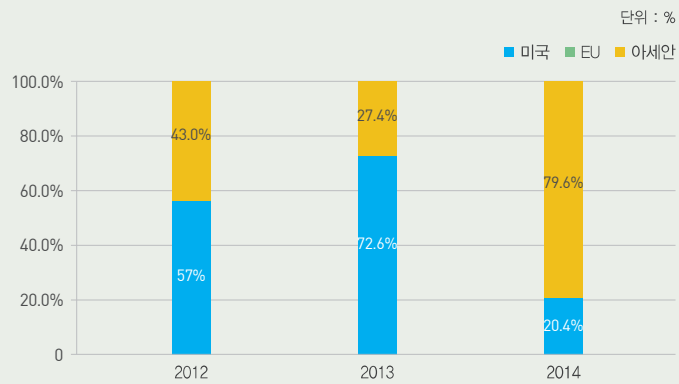
미국산 골프공의 3년간 수입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 총수입이 2천 6백만 달러로 이 중에서 실제 FTA 특혜를 받은 수입금액은 3백 8십만 달러, 총수입의 약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FTA 활용률은 15%로 낮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때 FTA 특혜수입이 가능한 골프공의 다수는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을 이유로 FTA를 활용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아세안 원산지의 골프공은 2013년 수입실적이 가장 저조하였지만 총수입실적 1.5백만 달러대비 특혜적용 실적 1.4백만 달러로 FTA 활용률은 96%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후 올해 태국산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규모가 폭증하였는데 FTA 활용률은 75%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다.

미국산과 아세안산 골프공의 2013~2014년 수입실적 및 FTA 활용률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띄는 것은 FTA 이행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FTA 이행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FTA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수입선을 변경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골프공은 어느 협정에서 가장 많이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아 수입되었을까? 3년간의 수입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은 미국(57%)·아세안(4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2013년과 2014년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3년은 미국(73%), 아세안(27%)로 미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2014년은 미국(20%), 아세안(80%)로 아세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29 골프공의 FTA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등산화

•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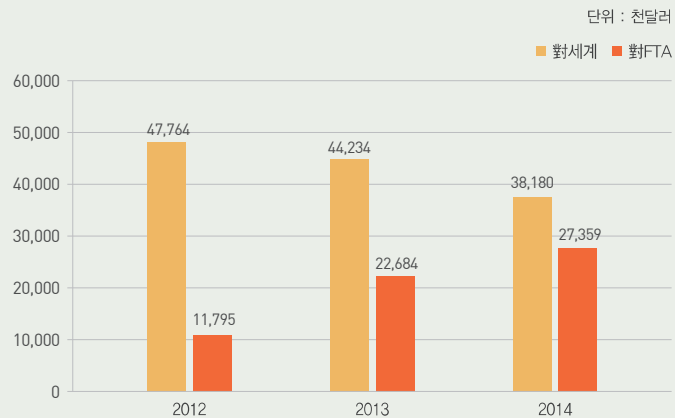
산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가죽·신발’ 시장 규모가 2009년 4,805백만 달러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0년 7,005백만 달러에서 2012년 8,400백만달러를 넘어서는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속성장세를 보이던 아웃도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올해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삼성패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아웃도어 시장 규모를 지난해 6조 9000억 원보다 16% 증가한 8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의 25% 성장률에 비교하면 9% 줄어든 수치이다. 업계는 이러한 시장포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트레킹 등산화에서 하이킹이라는 신개념 초경량 등산화를 선보이며 등산화 시장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등산화의 수입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4천 8백만 달러에서 2014년 3천 8백만 달러로 지속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반대로 2012년 1천 2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입규모가 올해 2천 7백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등산화의 총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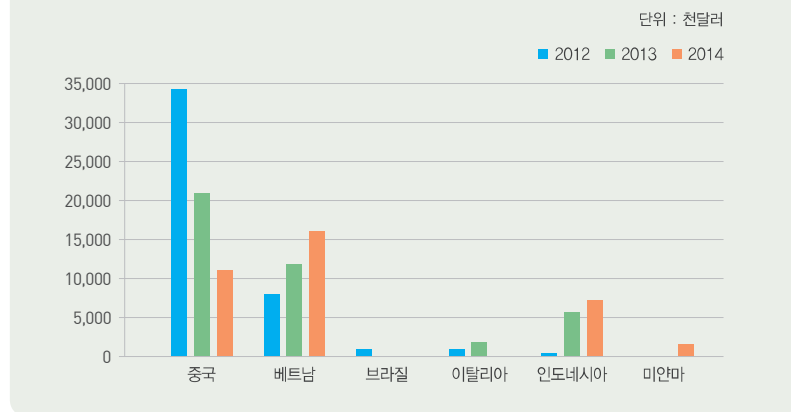
자료 : KITA

등산화의 주요 수입국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등산화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검토해 보자면 2012년 등산화 수입의 7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년 그 비중이 줄어 올해 중국산 등산화의 비중은 29%에 그쳤다. 반면 한-아세안 FTA 협정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올해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수입변화는 중국의 노무비가 상승함에 따라 주요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발제조업 인건비는 2003년 대비 약 3.5배 인상되었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30%상승하여 중국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신발업협회 관련조사 결과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발산업이 중국의 수주물량 30%를 잠식했고, 전체적으로 중국신발 공장 물량의 40%가 동남아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 등산화의 주요 수입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등산화의 FTA 수입동향을 종합해 보자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등산화는 다른 레저용품들과 비교하였을 때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FTA 활용률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중국 중심 생산공장이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중국산 대신 동남아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 한-아세안 FTA 특혜를 받아 수입된 것이 증가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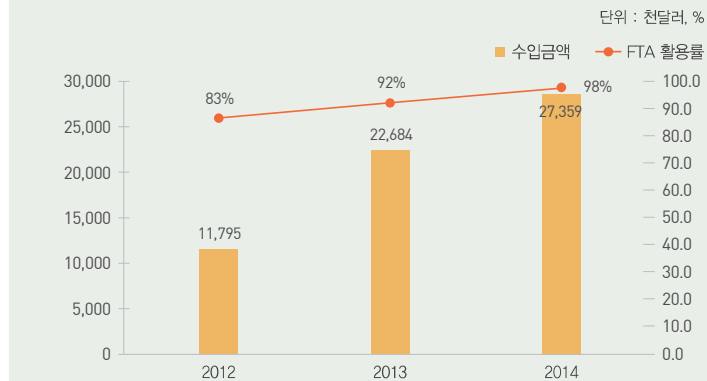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전체	11,795	9,839	83.0%	22,684	20,842	92.0%	27,359	26,734	98.0%
미국	225	163	72.5%	545	494	90.7%	47	36	75.9%
EU	2,409	1,735	72.0%	3,703	2,368	63.9%	1,545	1,079	69.9%
아세안	9,160	7,942	86.7%	18,435	17,979	97.5%	25,766	25,618	99.4%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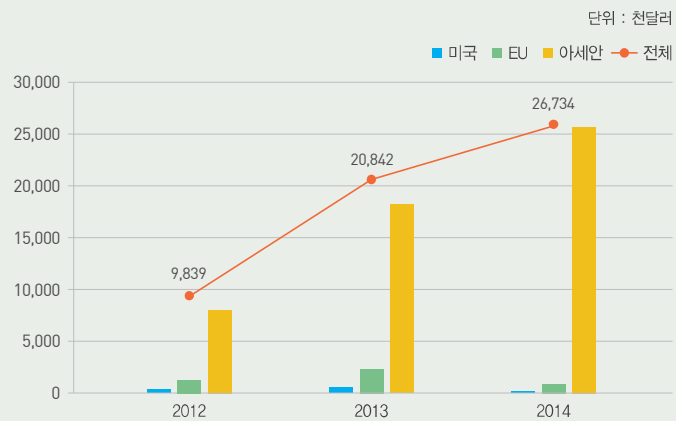
FTA 상대국으로 부터의 등산화 수입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천2백만 달러, 2013년 2천 3백만 달러, 2014년 2천 7백만 달러로 2013년 전년대비 92% 증가한 것에 이어 올해 역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연도별로 FTA 활용률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98%에 달하는 FTA 활용률을 보여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산화는 사실상 대부분 FTA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 등산화의 FTA국 수입 및 활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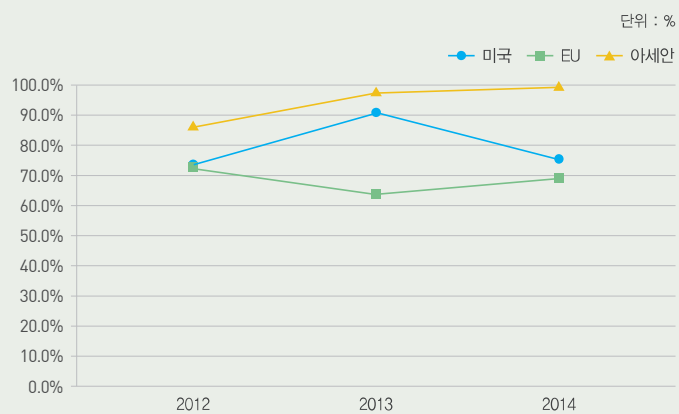
협정별로 FTA 특혜수입 현황을 검토한 결과 등산화는 한-아세안 협정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총 특혜수입 실적 2천 7백만 달러 중에서 아세안 특혜수입 규모가 2천 6백만 달러로 90%이상을 차지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같은 한-아세안 FTA 협정국에서 등산화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들의 대부분은 FTA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3 등산화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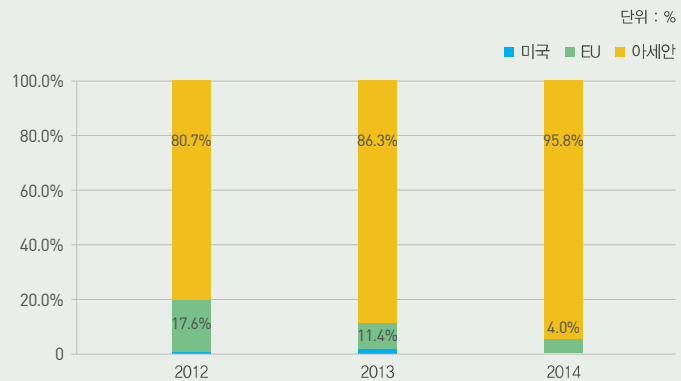
또한 등산화는 다른 레저용품들과 달리 연도별·협정별 FTA 활용수준이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평균 80%이상, EU는 평균 60%이상, 아세안을 평균 90%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4 등산화의 FTA 활용률



등산화의 협정별 FTA 수입 분포는 2012년 아세안(81%), EU(18%)에서 2014년 아세안(96%), EU(4%)로 변동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아웃도어 상품, 특히 등산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성 신발류의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수입에 의존 하였던 고성능 제품들이 국내 제품으로 대체되었고, 중저가의 제품군 및 동남아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한 등산화를 수입함에 따라 아세안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등산화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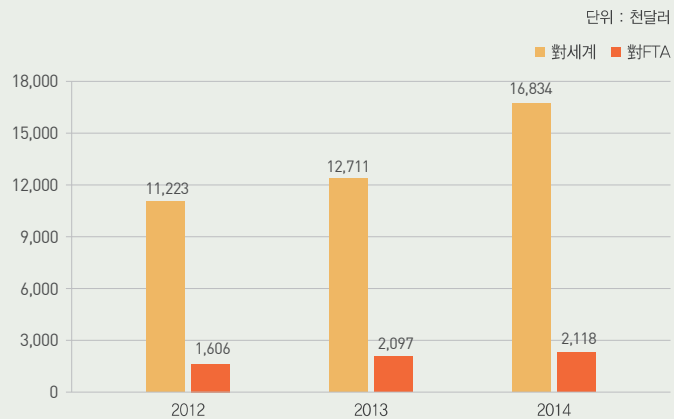
낚시 릴

• 총 수입

최근 중장년층의 취미활동으로 인식되던 낚시가 20대까지 확대 되면서 낚시용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올 추석을 전후하여 온라인 마켓을 통한 낚시용품 구매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 기간 동안 40~50대의 낚시용품 구매는 70% 증가한 것에 비하여 20대의 낚시용품 구매는 13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엔저 현상에 따라 주요 수입국인 일본산 낚시 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 이후 낚시 릴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1천 1백만 달러, 2013년 1천 3백만 달러, 2014년 1천 7백만 달러로 3년 평균 1천 4백만 달러를 수입하였고 올해는 전년대비 32%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다.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2012년(1.6백만 달러), 2013년 (2백만 달러), 2014년(2.1백만 달러)로 2013년은 전년대비 30%증가 하였고 올해는 1%증가 수준에 그쳤다.

그림 36 낚시 릴의 총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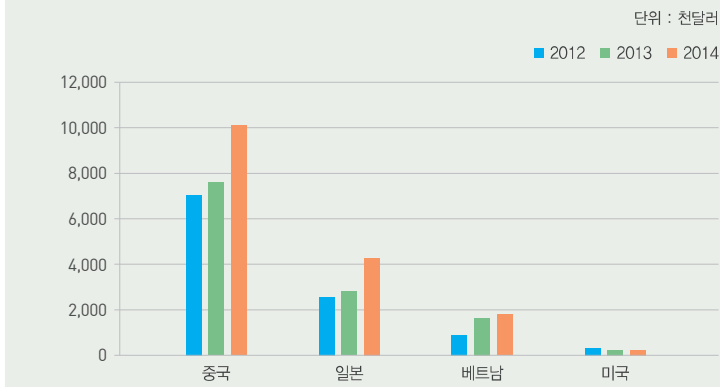
자료 : KITA

낚시 릴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으로 나타난다. 중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 비중이 작다.

주요수입국인 중국산과 일본산은 매년 수입금액도 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7.8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9%, 일본은 2013년 2.7백만 달러에서 2014년 4.2백만 달러로 52% 수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베트남은 수입 3위국가로 중국과 일본보다 비중이 작지만 꾸준히 그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9십만 달러)에서 2013년 1.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78%증가하여 중국 및 일본과 수입증가 연도에 대비를 보인다.

그림 37 낚시 릴의 주요 수입 국가



자료 : KITA

• FTA 수입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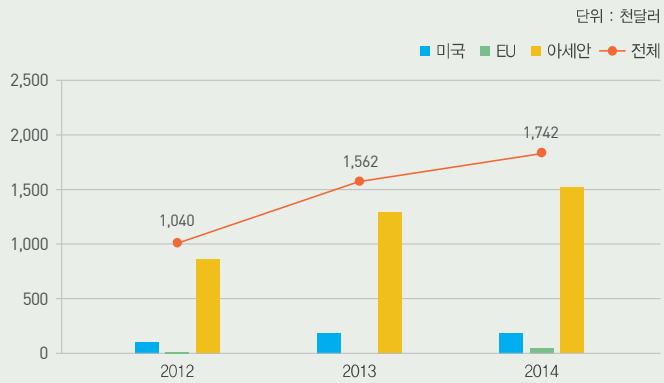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총수입	FTA 특혜수입	활용률
FTA 전체	1,606	1,040	65.0%	2,097	1,562	84.0%	2,118	1,742	83.0%
EU	9	3	32.0%	10	-	0.0%	40	30	77.4%
미국	433	157	36.4%	350	219	63.4%	375	209	56.7%
아세안	1,164	881	75.7%	1,736	1,343	89.3%	1,703	1,503	89.2%

자료 :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FTA국가로 부터의 낚시 릴 수입실적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1.6백만 달러 규모에서 2014년 2.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 이후 수입 낚시 릴에 대한 FTA 활용률도 65% → 84% → 83%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인다.

낚시 릴의 주요 특혜 수입 협정은 미국과 아세안으로 아세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과 EU의 FTA 활용규모는 미미한 반면 아세안의 특혜수입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아세안산 낚시 릴 수입 증가에 힘입어 2014년 FTA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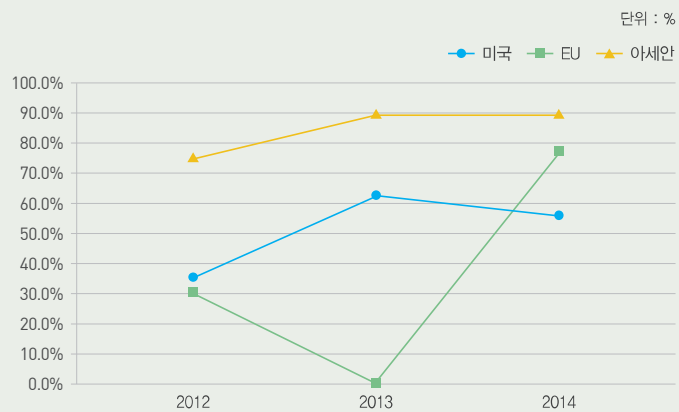
그림 38 낚시 릴의 협정별 FTA 특혜수입 동향



낚시 릴의 FTA 활용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매년 모든 협정의 FTA활용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수입국인 미국은(36% → 63% → 57%), 아세안은(76% → 89% → 89%)이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FTA 이행 환경이 정착되고 기업의 활용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아세안의 FTA 활용도가 90%에 육박하는 안정적 모습을 띄는 것과 동시에 2013년 단 한건의 FTA 특혜적용도 받지 않았던 EU 협정이 올해 77%의 활용률을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39 낚시 릴의 FTA 활용률



FTA 특혜를 가장 많이 받은 협정은 아세안으로 평균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낚시 릴의 주요수입국가 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실질적 수입 국가는 베트남이다. 2014년 베트남산 총수입실적이 1.8백만 달러로 2014년 한-아세안 특혜적용실적이 1.5백만 달러인 점을 감안 할 때 베트남산 대부분이 FTA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0 낚시 릴 특혜수입 협정별 분포

